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진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審 살피갈 내일!
:살필 심



心 희망찬 마음=
:마음 심

深 뜻깊은 오늘+
:깊을 심

2019
09

Vol. 520

2019.09



'진심'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힘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호 월간 <교정>에서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9월호 (통권 520호) 63권 9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마음 =

Contents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경청, 진심으로 대하는 것

08 사람을 읽다
소스토리 손정연 대표
서울동부구치소 교정위원

12 역사를 품다
사람을 향한 진심, 충절의 신화를 날다
정몽주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진심'



뜻깊은 오늘 +

16 교정은 행복을 싣고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수록 더 행복해지는 우리들
(천안교도소)

20 영화 같은 하루
신나는 VR 가상현실 "우리 팀워크는 진짜!"
(청주여자교도소 보안1부)

24 일상 상담소
"스마트폰 중독,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

26 마음 나침반
나의 진심을 알고 있나요?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다시 돌아올 우리 이웃, 낙인을 지우다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천국을 유영하는 듯한 낙원, 모리셔스
+ 파티와 관련한 영어 표현

32 신조어백과
쓰앵님 & 뽀시래기

34 글로벌 핫클릭
페루, 교도소의 변화
음악으로 교정교화 돕기 외



살펴갈 내일!

36 여민 교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체험

40 HEADLINE
가족과 함께 떠나는
교정공무원 힐링캠프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내 나름의 교정철학

48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가족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미안함,
부족했던 과거를 속죄합니다

50 교정을 말하다
교정기관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上)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2분기 우수 직원 소개

64 국민이 전하다
교정공무원의 이야기,
방송작가의 역할을 새삼 깨달았어요

65 낱말퀴즈

66 독자의 소리

“진심에서 나오는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 윌리엄 펜(영국의 신대륙 개척자) -

서로에게 진심을 숨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칠고 날카로운 말에 마음을 다친 경험 때문에 속마음과 다른 말을 꺼냅니다. 그러다 누군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주르르 눈물을 쏟게 됩니다. 나를 걱정하고 위하는 진심 어린 말이 단단히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상처 주려고 상대방이 던진 말에도 드러내지 않던 마음은 진심에서 우러난 말 몇 마디에 살포시 문을 엽니다.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심을 보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부드럽고 포근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보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 진심으로 대하는 것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 그걸 가려 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지혜다.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과 아만조차 그런 귀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은 수많은 소리를 듣는다. 그 자체가 날것으로서의 정보다. 사람의 소리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정작 쓸모 있는, 유의미한 소리는 많지 않다. 청각세포는 모든 소리를 최대한 포착한다. 듣고 싶은 소리만 선택해서 들을 수는 없다. 소음은 물론 아무 의미 없이 허공을 가르는 말소리도 다 들린다.

사람을 대면하고 듣는 말은 귀를 기울이게 된다. 불편하거나 내게 별 도움 되지 않는 말도 있다. 부담스러운 말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상대가 진지하게 그리고 애타는 마음

으로 쏟으면 경청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다. 경청은 겸손함이며 공명의 태도다. 굳이 조언도 필요 없다. 그저 들

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차분히 듣기만 해도 된다. 입이 먼저가 아니라 귀가 먼저고, 귀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게 경청의 본질이다.

모든 감정은 복합적이다. 하나의 감정만 갖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그걸 요구한다. 언제나 하나의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는 건 자신과 상대 모두를 기만하는 일이다. 미워하는 걸 두려워할 건 없다. 그걸 피하는 법을 찾으면 된다. 이기는 법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

애증은 짧은 만남의 관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래 겪은 관계에서 역인다. '애증'이라는 말의 순서가 그렇듯 증오하다가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랑하다 미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해도 서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미움이 커지면 이혼한다. 그러므로 애증의 바탕은 사랑이다. 애증이라고 말하는 것도 미움보다는 사랑의 감정이 더 컸을 때다. 그러나 사람은 관성에 의존하는 존재라서 사랑은 늘 당연히 있는 것이고 새롭게 짝 튼 미움은 커 보인다. 그게 자꾸만 눈에 띄고 마음에서 거슬리면 점점 커진다.

결국 특이점의 지점에 도달한다. 특이점이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 질량체가 붕괴하게 된다는 이론적인 점을 말한다. 인과적 기술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는 그 어떠한 지성적 판단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애증의 관계에서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성한계 혹은 탄성한계를 넘으면 고무줄도 용수철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 미움의 영토가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움의 원인이 온전히 상대에게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미움의 감정이 돋보일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차지하는 영토가 얼마인지 냉정하게 검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리 냉정하고 객관적인 게 아니다. 그걸 잊고

미움의 감정만 아프고 크게 느껴지면 애증의 감정도 무너진다. 그러나 미움의 감정이 도저히 사랑의 감정을 누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경청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대를 듣는다는 건 상대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게 진심의 본질이다.

들리지 않는 소리는 듣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 때로는 침묵을 들어야 한다. 침묵을 넘어 고요인 '소리'도 들어야 한다. 심심상인(心心相印)의 경지가 최고의 경청의 단계다. 표정만 봐도 그가 하고자 하는 말과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건 귀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은 사랑이고 공명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이인 사람이 몇 명인지 짚어보면 내 삶의 질을 알 수 있다. 관계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경험을 제주 올레에서 그리고 오름에서 나는 친구가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내 말이 휘방될까 싶어서 말을 아끼고 그냥 걷는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야기를 나뉘 보면 같은 사물이나 풍광에 눈길을 주었고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다. 그 길에서 불뉘 바람에 담긴 메시지까지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은 짜릿하다. 말로 나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느낌이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음을 확인하며 빙긋 웃는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식의 표정만 보아도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들이 아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소리가 귀로 전달되어 고막을 울려 음성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미 머리와 가슴을 울림으로써 속내를 알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넘어서 듣는 것도 우월감이나 일방적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상대는 질식한다. 경청은 소리가 담겼던 소리를 넘었던 상대가 자식이나 어린 사

람이건 가리지 않고 겸손하게 마음을 듣는 것이다. 'Sound of Silence'까지.

제대로 들을 때 우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심표까지 읽어낸다. 음악에서도 쉬지 않고 소리가 이어지면 소음을 듣는 것만큼 끔찍해진다. 소리 없음도 엄연히 음악이다. 그걸 읽어 내는 게 제대로 된 음악 감상인 것처럼 언어의 부재 상태에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경청의 속살이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갈등과 번민 순간에도 기댈 곳이 있어서 힘겹지만은 않다. 어설픈 나만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나를 알볼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고백의 내용이 부끄러워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읽은 뒤에 털어놓아야 한다.

아무리 내게 잘하고 서로 죽어 잘 맞아도 내 불편한 이야기 듣는 걸 꺼릴 수도 있고, 내 말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에게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친소관계의 농도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건 아니다. 어쩌다 가끔 보는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의 속내를 털어놓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며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인지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배신감만 되돌아온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대로 상대를 찾으면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걸으려는 태연해도 뭔가 힘들어하는 게 있다는 걸 읽어 내고 응원해 준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 먼저 묻는 것이다. 나는 듣지 않으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만 찾는 건 지극히 이기적인 일이다.

김경집(金京執)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해 가르쳤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책탐』, 『생각의 융합』, 『엄마 인문학』, 『인문학은 밥이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서재'에도 꽂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서평집 『책탐』으로는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마음상담코칭연구소 '소스토리(SOStory)' 손정연 대표는 교정위원 자격으로 한 달에 두 번 서울동부구치소를 찾는다. 인성교육을 통한 교정교화가 목적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수용자들과 함께한다. 덕분에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끼지만, 수용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정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지켜보면서 수용자 못지않게 이들의 마음 또한 살피고 보듬어 줄 필요성을 절감한 까닭이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 기여하는 방식

소스토리 손정연 대표 서울동부구치소 교정위원

인문학을 접목한 상담으로 마음을 읽다

손정연 대표도 한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마케팅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우연히 사내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짧은 강의를 담당한 것이 터닝포인트로 작용하였다고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에 재미를 느껴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정글 같은 프리랜서 강사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제법 자리를 잡아 가던 삶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만 제동이 걸렸다. 임신과 더불어 엄습한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번졌다.

“거의 매일 밤 남편에게 이혼하지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멈춘 건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그제야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되었죠. 당시 <비폭력대화>라는 책과 한국비폭력대화센터에서 받은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감정코칭을 배우기 시작했고, 심리상담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손정연 대표는 본격적으로 상담 이론을 공부하기까지 예열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자칫 상담 이론에 함몰되어 사람의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새겨들은 것이다. 관련 책을 읽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등 풍부한 실습 경험을 쌓았다. 상담 이론 공부를 위해 한국상담대학원에 진학한 건 어느 정도 경험치가 두둑해진 후였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데다 문학상담을 배울 수 있다는 점



에서 한국상담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이후 주로 인문학을 접목한 심리치료를 해 오고 있어요. 철학이나 문학, 예술 등을 매개로 내담자의 마음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인데요. 내담자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도구로 인문학을 활용하는 거죠.”

수용자 못지않게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정공무원들

인문학을 접목한 심리상담이라는 독특한 접근방식 외에도 손정연 대표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과 집단상담, 심리치료 등을 아우르는,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것이다.

“보통 교육이면 교육, 심리상담이면 심리상담으로 전문가 그룹이 나뉘는데요. 저는 교육으로 시작해 심리상담으로 영역을 확장한 덕분에 다양한 니즈(요구)를 수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의 경우 대부분 교육과 집단상담을 함께 의뢰해 오고, 최근에는 필요한 경우 개별상담까지 묶어서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요청만으로도 일정이 촘촘하게 채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심심찮게 들어오는 방송 출연 의뢰와 <오늘도 상처 입으며 일한 당신에게>, <감성, 비우고 채워라>, <뒤엉킨 관계의 끈을 푸는 기술> 등 다양한 심리치유 저서까지 집필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는 바쁜 일정을 비집고 교정위원의 자격으로 한 달에 두 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정교화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교정위원이 된 건 지난해지만 2015년부터 간간이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해 왔어요.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 가치관에서 비롯된 활동인데요. 저와 제 가족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과 공동체, 나라, 나아가서는 세계가 평화로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지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만의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죠. 교정교화활동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하나인 셈입니다.”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해 오고 있는 그는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기쁨과 보람이 크다고 말한다. 다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못지않게 마음이 쓰이는 대상이 생겼다고 털어놓는다.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교정 공무원들이다.

영광스럽지만 고뇌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자리

손정연 대표는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요청을 받고 법무연수원과 대전교도소 등에서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통으로 이끄는 갈등 회복’ 등 감정을 다스리는 교육을 여러 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그가 교정공무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나는 교정공무원들은 환한 얼굴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항상 웃으며 일하는 모습에도 제 마음이 무거워진 건, 법무연수원 등에서 감정코칭 교육을 하며 교정



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환경과 인권의 민낯을 목도하면서부터였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근무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소외감, 수용자들에게 노출된 업무 환경이 주는 압박감,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상당한 수용자 수에서 오는 피로도 등이 눈에 띄었다. 이 때문에 교정공무원들이 자조적으로 주고받는 ‘또 다른 수용자’ ‘제복 입은 수용자’ 같은 농담에서조차 웃음기 대신 마음의 그늘을 느꼈다.

“심리적인 부분은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일례로 가끔 소방학교에 교육을 하러 가는데, 개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소방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이겨 내더군요. 저는 교정공무원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이론을 배울 때 상담자란 ‘영광스럽지만 고뇌해야 하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교정공무원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화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고뇌가 따르는 일이니까요.”

손정연 대표는 교정공무원들의 고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교정공무원 개인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일인 동시에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넓히는 ‘심리 엔터테이너’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행동의 결정권은 결국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 마음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정연 대표 역시 타인의 마음을 챙기는 일에 더러는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주는 힘은 자신을 통해 변화한 사람들이다.

“처음 수용자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후배로부터 마음에 박히는 충고를 들었어요. ‘듣는 사람에게 강의는 그 사람의 시간을 바치는 일이니,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는 폭력과 다름없다’는 거였죠. 항상 그래왔듯 제가 건네는 말의 알맹이가 진실하도록,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듣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최소한 제 강의가 폭력이 되진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껴요. 가끔 지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죠. 교정공무원들에게도 수용자가 힘을 주는, ‘변화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수용자는 물론 교정공무원의 마음까지 두루 살피는 그는 교정위원 활동 외에도 ‘심리 엔터테이너’라는 별명에 걸맞게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노인심리에 바탕을 두고 ‘나이듦’에 대한 심리적 수용을 다룬 책을 집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감성코칭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진행한 ‘심리아살롱’이 그것이다. 지역 도서관과 협력하여 매월 1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중이다. 현재 주로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요청이 있으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열기도 한다. 손정연 대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함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저마다의 마음에 평화의 영토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에게 건네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많이 힘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 이웃,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 충절의 신화를 낳다

정몽주



고려의 충신 正蒙周 正蒙周 (1337~1392)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단심가'는 고려 말기 이름 높던 재상 정몽주의 충절을 드러내는 시조로 유명하다. 시조에 언급된 '님'은 기울어 가던 고려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한 '일편단심(一片丹心)' 네 글자에서 국가와 백성을 위한 '진심'을 놓지 않았던 정몽주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 ”

백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

고려 말의 충신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정몽주가 일평생 쌓은 다양한 업적은 '단심가' 이상으로 대단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 앞에 헌신한 그의 삶은 조국 고려를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정몽주는 1360년 관직에 진출한 이후 쉬 없이 공부하는 한편 다양한 개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 그는 의창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인재를 뽑는 과정을 살피며 공정을 기하였다. 왜구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조운 시설을 재건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원칙 없이 운영되던 회계출납을 개혁하여 부정을 방지하였다.

또 유학을 보급하고 가르치며 나라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성리학 해석에서 그를 따를 이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정몽주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학자로 꼽혔던 목은 이색은 “어떤 말이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 칭찬하면서 그를 '동방이학의 조종(祖宗)'이라 평하였다.

정몽주는 이 같은 학문적 깊이를 바탕으로 교육에도 헌신하였다. 당시 수도였던 개성은 물론 각 지방에 학당과 향교를 세워 교육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나라의 바탕을 단단히 하였고,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며 직접 후학을 길러 내기도 하였다. 그가 키워 낸 이들은 후일 조선 성리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또한 문신임에도 전장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품성의 소유자였다.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북방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시달린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그는 동북면도지휘사 한방신의 종사관 자격으로 여진족 토벌에도 참여하였다. 1363년의 일이었다.

이 시대에도 필요한 '진심'

학문, 외교, 정치, 언술에 시·서화까지, 요즘 말로 하면 '절정 과다'에 가까운 캐릭터였지만 정몽주의 삶이 늘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한때 '배명친원(排明親元)'을 주장하는 세력에 밀려 언양으로 유배를 가기도 하였다. 명과의 친교를 고수한 정몽주는 명을 버리고 원을 택해야 한다고 믿었던 친원파들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친원파들은 기어이 정몽주를 유배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의 외교적 언술과 협상이 필요해지자 1년이 채 되지 않아 형을 중단시키고 정몽주를 불러올렸다. 정몽주가 1377년 유형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왜에 사신으로 급파되었던 일화는 백성만을 생각하고 노력했던 그의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친원파들은 앞서 사신으로 갔던 나홍유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자 다음 사신으로 정몽주를 추천하였다. 친교가 어렵다면 정적 제거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이었다. 정몽주는 거의 단신으로 구주(九州: 현재의 큐슈 지역)의 패가대로 향한다. 그리고 친원파의 기대를 온전히 배반한 성과를 들고 고려로 돌아온다.

왜에 찾아가던 정몽주는 포악하기로 소문난 영주를 설득하여 침략 행위 단속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잡혀 있던 고려인 포로 수백 명도 구출하였다. 뛰어난 언술과 협상력의 결과였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정몽주는 오랜 시간 만남을 청하고 또 청하며 왜의 영주에게 국제관계를 설명하고 설득하였다. 고려 양민 수백 명이 왜에서 노비로 혹사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사재를 털고 고려의 다른 대신들까지 설득하여 구출 비용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정몽주의 노력을 안 왜의 영주는 그가 청할 때마다 고려인 포로를 돌려보냈다고 전해진다.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백성이 위협에 처하였음을 알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이들은 많지만 사재를 동원하여 구출을 도모한 사람은 많지 않다. 평생에 걸쳐 보인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이야말로 재상 정몽주가 마지막까지 품으려 했던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달라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공직자의 덕목일 것이다.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진심’

9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진심’입니다. 진심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말합니다. 진심을 나누는 대상과 함께하는 일상은 편안함과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진심이 담긴 관계를 맺으려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믿고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 기회에 진심이었던 그때를 회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호 주제인 ‘진심’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보았습니다.

작년에 수용자 때문에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죠. 퇴근할 때 선배들이 커피를 사 주거나 편찮아며 문자를 보내 주면서 저를 챙겨 주셨어요. 그때 선배들의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힘내라고 말 한 마디 해주셨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겠어요. 수용자 때문에 힘들었지만 동거동락하는 선배의 진심이 와 닿아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청주여자교도소 교도 유지의〉

진심이란 말에 반침하나 바꿔 보면 직심이 됩니다. 어쩌면 진심이란 돌아가지 않고 상대방을 향한 옳은 마음(직심)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직심의 마음으로 산다면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교도소 교사 심형보〉

상담을 하다 보면 수용자의 문제와 아픔을 끌어내고 들어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 수용자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어느 수용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수용자는 삶을 포기하려고 계획했으나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한참 털어놓으며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을 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수용자와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가족 관계 회복을 도왔습니다. 서로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 수용자가 마음을 열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서승엽〉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로 전보 온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각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여수용동 직원 분들의 배려와 따뜻한 진심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주교도소 교사 김유미〉

저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학생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에 어묵 국물을 먹으며 첫사랑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비싼 술과 안주라도 그때의 추억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차가 없어서 하루 종일 손잡고 걸어 다녀도 모자랐던 그때, 서로를 향한 진심은 온 마음을 베풀 행복으로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도 하우현〉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수록 더 행복해지는 우리들

천안교도소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고 하였다. 지난 2014년 발족한 천안교도소 봉사동호회 ‘사랑나눔회’의 회원들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활동을 펼치며 스스로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8월 23일, 천안교도소 직원들과 지역민이 함께하여 더욱 행복이 충만했던 그 길에 <교정>이 동행해 보았다.



후원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오늘은 천안교도소 직원들이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사랑과평화의집’을 방문하는 날이다. 시설에 필요한 물품이며 과일상자를 쌓고 나르느라 분주한 와중에 뜻밖에도 서수원 소장이 잠깐 만나길 청한다.

바쁜 시간을 쪼개 일부러 취재진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한 서수원 소장은 지역을 위한 나눔에 발 벗고 나서는 천안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동네인 천안에서 이웃들의 가장 가까운 벼를 자처하는 교도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성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한다. 그를 보아하니 천안교도소는 미래에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봉사와 나눔의 길을 걷게 되리라 짐작된다. “서수원 소장님 역시 오자마자 사랑나눔회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임재광 교위(사랑나눔회 총무)의 귀뜸이 그 생각에 확신을 더한다.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오자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차를 나눠 타고 ‘사랑과평화의집’으로 향했다. 꼬불꼬불 차가 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싶었는데 밭과 산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의 목적지가 눈에 띈다. 버선발로 달려 나와 천안교도소 사람들을 반긴 것은 시설의 김재순 원장이다. 그리고 김재순 원장보다 직원들을 더 반긴 것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원생 11명이다.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적장애인이다.

찾아온 사람들도 맞이하는 사람들도 친구 혹은 가족을 만난 듯 편안하고 유쾌하니 천안교도소 사람들이 이곳을 얼마나 꾸준

히 드나들었는지 넉넉히 짐작이 간다.

김재순 원장에게 특히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후원자를 넘어 은인 같은 존재다. 2016년 5월, 이곳에 봉사를 다니다가 시설을 인수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듯 막막하였다. 그럴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 바로 이들 천안교도소 교도관들이었기 때문이다.

“빛까지 내서 인수한 뒤 딱 열흘 만에 천안교도소 사랑나눔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생들에게 바비큐 파티를 열어 주고 싶다고요.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고 후원금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천안교도소 사랑나눔회가 이곳 사랑과평화의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였다. 김재순 원장과 연락이 닿았던 2016년 5월에도 그저 정기적인 방문을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저희가 사랑과평화의집을 꾸준히 찾은 이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원과 예산을 충분히 받는 곳 말고 열악한 곳에 우리의 진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두 군데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사랑과평화의집이었어요. 이곳에 사랑나눔회 회원은 물론, 일반 직원들, 음악동호회 쿠키밴드 회원들, 교도관들의 가족까지 자주 찾아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재광 교위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어두컴컴하고 매우 음침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지고 쾌적해졌다면서 김재순 원장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였다.

오늘 천안교도소 사람들이 들고 온 선물은 꽤 큼직한 것이었다. 잘 익은 복숭아와 포도 상자들, 그리고 10인용 전기압력밥솥 2대와 제빙기 1대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나눔회 가족 분들은 저희에게 늘 물어보세요. 뭐 필요한 게 없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밥솥과 제빙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저희가 쓰는 밥솥이 너무 오래 되어 밥이 제대로 안 지어지는 형편이었고, 워낙 얼음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원생들 때문에 늘 얼음이 부족했거든요. 이렇게 꼭 필요한 물건을 선물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김재순 원장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언제나 무엇이든 퍼주려고 하는 친절엄마 같은 존재란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마치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위해서 모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바로 독립기념관 나들이다.

“오늘 무얼 하면 다들 기뻐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한일 문제가 이슈인 만큼 현충사를 가볼까, 영화 <봉오동전투>를 단체 관람할까, 교도관들이 직접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까, 텃밭 농작물을 수확해 볼까 여러 안을 놓고 심사숙고했지요.

그러다가 8월 광복절을 맞아 의미 있는 장소인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원생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임재광 교위의 리더에 따라 차에 몸을 싣는 원생들의 표정이 밝기 그지없다. 열 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인솔하고 이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들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도전인 동시에 이벤트다.

지역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우리 천안교도소

가을의 초입이지만 한낮의 햇살은 여름처럼 뜨겁다. 그러나 함께 누리는 이 행복이 어디 날씨 따위에 질소냐. 독립기념관 본관이 가까워 올수록 모두가 웃고 떠들고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다. 원생들은 천안교도소 직원들과 손을 꼭 잡은 채 이동한다. 그런 원생들을 보는 김재순 원장의 표정에 표현 못할 무언가가 한가득 떠오른다.

거대한 조형물과 태극기가 가득한 독립기념관 중앙로비에 다다르자 원생들 모두가 “우와” 하고 감탄사를 내지른다. 초대형 태극기를 목이 떨어질 듯 올려다보기도 하고, 낮을 잃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쳐다보기도 한다. 천안교도소 직원들이 원생들의 그런 모습을 열심히 사진 찍어 주고 또 영상으로도 남긴다. 오늘 온 직원들 중에서 유일한 홍일점은 바로 총무과 안효순



교위다.

“사랑나눔회 회원은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함께 왔습니다. 원생들은 전부 여자이고 오늘 찾아온 사랑나눔회 회원들이 우연찮게 모두 남자인 바람에 혹시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에 대여섯 차례씩 꾸준히 시설을 찾아 봉사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늘 감동을 느껴요. 천안에 있는 교정기관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순 교위의 미소에 양성기 교감도 이야기를 덧붙인다.

“저는 사랑나눔회가 처음 발족했을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중간에 전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천안교도소에는 현역 직원들은 물론, 퇴직을 한 선배까지 꾸준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이 꼭 필요하고, 혹여 교정시설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편견을 해소할 기회를 갖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천안교도소의 일원으로 작게나마 봉사에 참여하면서 나눔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언제나 앞장서 일을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임재광 교위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독립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사랑과평화의집 식구들에게 중국 집에서 거하게 점심식사까지 대접한 천안교도소 직원들, 식사




를 하는 내내 살뜰하게 짜장면을 비벼 주고 탕수육을 집어 접시에 놔 주면서 앞치마까지 돌려준다. 직원들의 모습에 진짜 가족애가 무엇인지 실감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임재광 교위와 직원들. “천안교도소 교도관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우리 원생들을 거리낌 없이 챙겨 주고 편견 없이 대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한 김재순 원장. “오늘 막 돌아 다닌 게 제일 좋았다”고 외쳐준 원생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누고 베푼 하루 덕분에 한 뼘씩 더 행복해졌다면 과장일까?

“봉사처럼 재미있는 게 없다. 내가 그냥 흘러보내는 무의미한 휴일도 봉사를 하러 간 순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조승일 교위의 말이 오래오래 귓가에 남는다.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correct2015@naver.com
메일 주소 yjw1219@korea.kr



신나는 VR 가상현실 “우리 팀워크는 진짜!”

청주여자교도소 보안1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다. 특히 교도관들은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하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 주는 존재는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는 동료다. 청주여자교도소 보안1부 직원들은 출신 지역도, 나이도, 성향도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한다. 소통과 협력이 몸에 밴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만난다면 어떨까.

생생한 VR체험, 실내놀이의 매력에 빠지다

쨍쨍한 햇살이 기승을 부리는 8월, 괜히 몸이 축축 처지고 무료한 기분이 든다. 이럴 때 특별한 놀이를 하고 싶어도 막상 바깥 활동을 하기보다 시원한 실내를 찾게 된다. 이번 ‘영화 같은 하루’도 직원들을 배려하여 실내로 장소를 정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VR게임장에 들어서니 벌써부터 참여 대상자인 청주여자교도소 보안1부 직원들이 모여 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일단 들어왔는데 금세 VR체험에 흠뻑 빠진 모양이다. VR고글을 쓰고 팔을 휘젓고, 빌딩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비명을 지른다.

“VR게임은 처음이라 궁금한 마음에 일찌감치 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VR게임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떨어질 때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아찔하네요.”

VR게임은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체험이다. 청주여자교도소 보안1부 직원들의 얼굴에 낯선 체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들 한 번씩 VR고글을 써 봤는지 모두가 일회용 위생마스크를 쓴 상태다. 얼굴이 가려진 테다 체험을 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였다. 한참 기다린 끝에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영화 같은 하루’를 신청한 서승엽 교감은 VR의 매력에 푹 빠진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였다. 그에게 후배들은 늘 고마운 존재다. 평소 고된 야간 근무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잘 버텨 주기 때문이다. 그런 후배들을 격려하고 싶어 영화 같은 하루 코너 참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덧붙인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임용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들이 많아요. 대부분 나이도 어리구요. 후배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서승엽 교감의 말처럼 VR게임은 직원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모두들 VR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듯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VR게임장 장악, 협동심은 더욱 높아져

한바탕 VR체험을 끝낸 다음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였다. 직원들이 할 게임은 서로 간의 협동이 중요한 ‘엘븐 어쌔신’이

다. 이 게임에서는 성 안으로 침입하려 드는 오크들을 활로 쏘아서 맞추며 우리 성을 지켜내야 한다. 오크들을 막지 못하면 성의 게이지가 떨어진다. 남은 게이지가 0%이면 결국 성이 함락되면서 게임이 종료되고 만다.

직원들은 VR고글과 마이크, 헤드셋을 착용하고 VR컨트롤러로 활 쏘는 방법, 마이크로 대화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그리고 VR게임장에 마련된 다섯 개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이 시간만큼은 VR게임장 전체가 이들만의 공간이다. 김혜지 교도는 이날 참가자들 가운데 유일한 VR 경험자다. 하지만 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협동게임이라 더욱 남다르게 다가온다.

“친구와 둘이서 할 때보다 공간이나 인원의 스케일이 커지니까 훨씬 색다르네요. VR게임을 하다 보면 낯선 사람이 다가와 구경하는 바람에 방해받기도 하거든요. 이곳 전체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런 불편이 없네요.”

생경한 게임 도구와 방식을 신기해하는 것도 잠시다. 모두들 VR컨트롤러를 양 손에 쥐고 활을 쏜다. 이들은 엉거주춤 서툰 움직임에 민망한 웃음을 짓기보다 서로에게 더욱더 의지한다. 평소 함께 야간 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치’ 덕분이다. 화장이 무너져 망가진 모습도, 피곤에 지친 모습도 익숙하다. 활을 쏘다가 넘어지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크 떼거리로부터 성과 마을을 지키느라 지칠 때쯤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갈게요! 저 여기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점차 협동심을 발휘하였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처럼 말이다. 유지의 교도는 동료들이 다른 방향에서 성과 마을을 방어해 준 덕분에 게임 실력이 점차 향상되었다고 확신한다.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 대개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동료밖에 없지요. 외롭고 힘든 순간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VR 협동게임도 다 같이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저희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식사 자리도 소중한 시간으로

숨 가쁘게 움직이며 VR게임을 해서 그런지 배고픔이 몰려왔다. 직원들은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였다. 어느 직장인들처럼 퇴근길에 동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따로 만나기가 어렵다. 서로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러운 마음도 크다. 그만큼 ‘영화 같은 하루’가 마련한 작은 식사 자리가 소중하며 직원들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 식사 자리의 메뉴는 직원 모두가 선호하는 파스타와 피자, 리조또다. 메뉴가 나오자마자 서로의 접시에 음식을 능숙하게 덜어 준다. 분주히 움직이며 동료들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사소한 행동에서 이들의 업무 분위기와 동료애가 드러났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동료들이 떠오른다. 청주여자교도소 보안1부는 총 스무 명인데 여덟 명밖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음에도 VR게임장 전체를 빌려서 다 같이 게임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얼른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승엽 교감은 오늘 하루가 후배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길 바란다.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로해 주었던 많은



나날. 그 많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거리 하나쯤은 간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교정공무원으로 28년을 근무해 온 그에게도 오늘의 하루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계장님께서 먼저 말 걸어 주고 편히 대해 주셔서 VR게임도 재미있게 하고 밥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임유진 교도는 서승엽 교감과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한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영화 같은 하루를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기회는 먼저 잡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지 않던가.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먹고 접시를 비운 그들은 무언가 아쉽다는 눈초리다.

“마무리로 팔빙수 한 입 하면 딱일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격한 공감을 표한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저녁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늘 가까이 에 있더라도 직원들에게 만남의 순간 하나하나가 값지다. 영화 같은 하루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소중한 시간을 값어치 있게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추억은 더욱 오래 남는다. 이들이 10년 차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오늘의 기억은 따뜻하게 남아 있으리라.

월간 (교정)이 여러분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은 독자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평소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고, 가고 싶었던 장소에 방문하는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스마트폰 중독,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

인구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대. 사실상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하고 길을 찾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만큼 스마트폰 의존도는 날로 증가 중이다. 심지어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도 늘고 추세다.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이 의심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바꾸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혹시 내가 스마트폰 중독은 아닐까?’

최근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 의심 중이라는 김영민(가명·35) 씨의 일상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듣고 잠을 깨고 날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열어 복장과 우산 지참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비게이션 앱으로 출근길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집을 나서면서 버스 앱을 열죠. 또 예상 도착시간에 맞춰 걸음을 조절하면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버스에 탑승하고 나면 음악을 끄고 동영상 앱을 또 엽니다. 어지간한 드라마, 예능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독이 아닐까’라는 의심의 시작은 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출근길의 스마트폰 이용이야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사실 심각하다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죠.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회



의를 하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에 답신을 하거나, 괜히 대기화면을 확인하는 등 목적성 없이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손목도 부쩍 아픈 것 같고 목도 빠근하구요. 주변 동료와 상사가 눈치를 주는 일도 많아졌죠. 급기야 어제는 상사의 주의를 받다가 책상에 올려 둔 스마트폰 액정이 환하게 반짝 하는 걸 보고 부지중에 손을 뻗다가 두 배로 혼이 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를 읽거나 SNS를 보고,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야 할 시간을 넘겨 수면부족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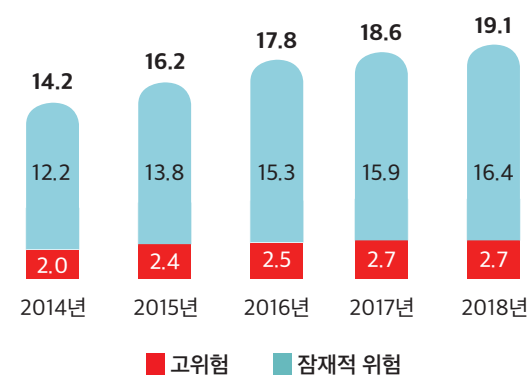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

김영민 씨 같은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습니다. 특히 직업 유형 분석 결과 사무직 종사자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스마트폰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화장실에 가거나 회의를 할 때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챙깁니다. 손목이 아프고 목이 빠근해질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늦게 잠드는 날이 늘어난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 스마트폰 중독도 내성과 금단증상을 부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이른 이들은 스마트폰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주변에서 “스마트폰 좀 그만 보라”는 이야기를 계속함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즐겁고 ‘이제 그만 봐야지’ 했다가도 자꾸 들여다보고 있다면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잠금 앱, 심리상담 등 다양한 대처 가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파악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쓰는지 등을 숫자로 확인하면서 절제의 필요성을 스스

로 각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앱을 사용해 보아도 좋죠. 설정해 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 기능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앱의 도움을 받아 하루 중 얼마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습관을 들여 봅시다. 스마트폰 안 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모바일 캐시로 지급하는 앱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면 심리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박이나 게임 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의존증 역시 심리적 불안을 고조시켜 결국 증세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의심된다면 ‘스마트쉼센터(www.kapc.co.kr)’에 접속해 과의존 여부를 진단해 보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봅시다. 전화 상담(1599-0075), 게시판 상담, 내방 및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며 동일한 문제를 겪는 지인이 있다면 집단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 0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 0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 0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0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0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0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 0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 0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 0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5개 이하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건전한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자기 점검을 하세요.

5~7개 과의존이 의심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개 이상 고위험 사용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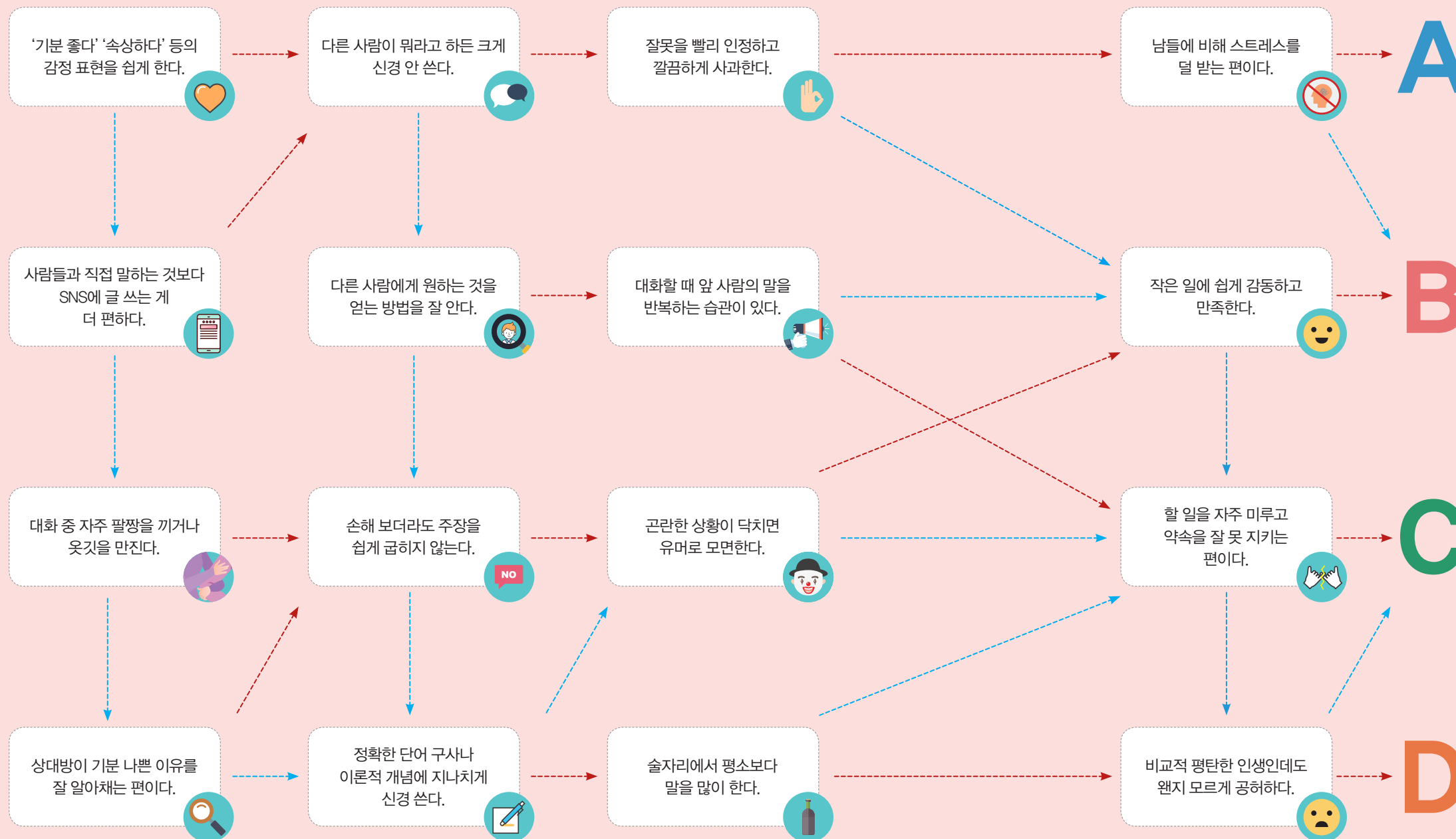
나의 진심을 알고 있나요?

---> YES
---> NO

다른 사람 마음만큼 알기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을 직시해야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게 진실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들려주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솔직하며, 나의 진심을 피하지 않고 들어준다면 자존감도 높아진다.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 진심을 들여다보는 돌보기가 필요하다.

참고서적 <마법의 심리테스트>(나카지마 마사미, 이젠), <내가 말하는 진실, 내가 모르는 본심>(매릴린 케이건 외, 전나무숲), <거짓말의 비밀>(그레고리 하틀리 외, 북노마드)

START



자신감의 원천은 솔직함 아닐까요?

당신은 화낼 때는 화내고, 기쁠 때는 소리 내어 웃고, 잘못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타입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당신의 최대 무기는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표현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감정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눈치가 빨라 센스도 만점이군요

적당히 눈치를 볼 줄 알고, 솔직해야 할 때는 나설 줄도 아는군요. 아마도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을 테지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화술과 처신으로 분위기를 사로잡고, 동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눈치 없이 할 말을 다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지 않나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씨는 칭찬하고 싶지만 무조건 참거나 웃기도 하네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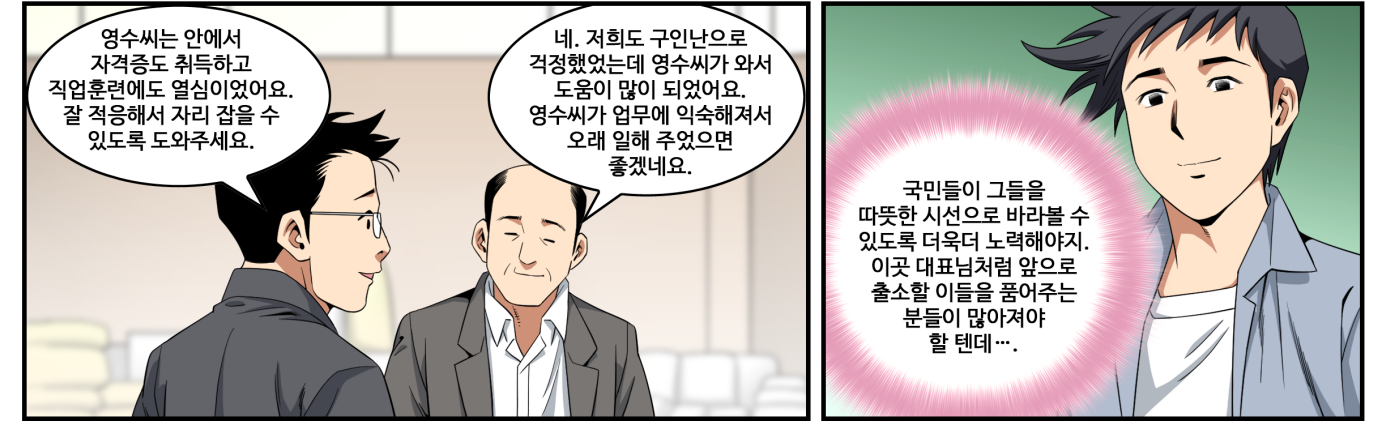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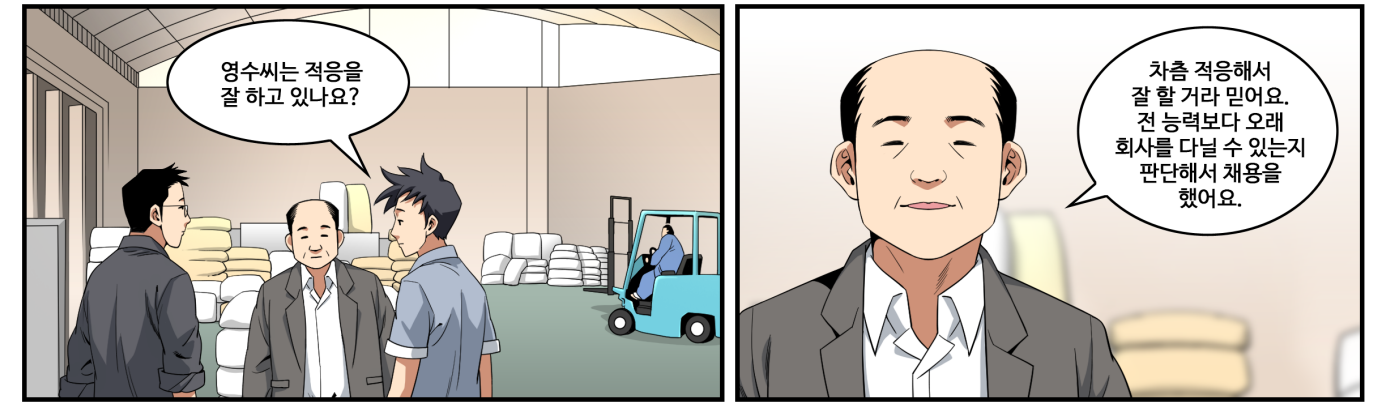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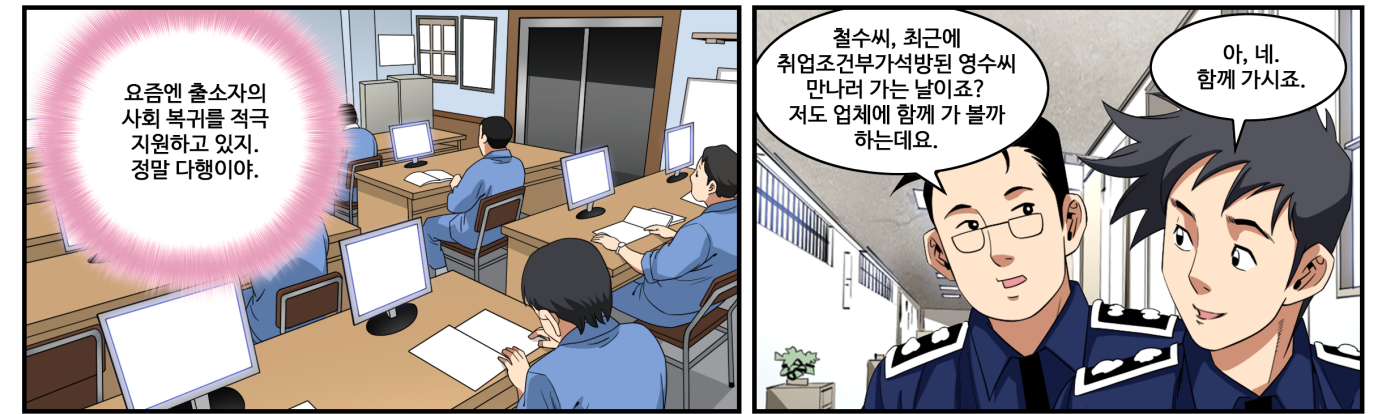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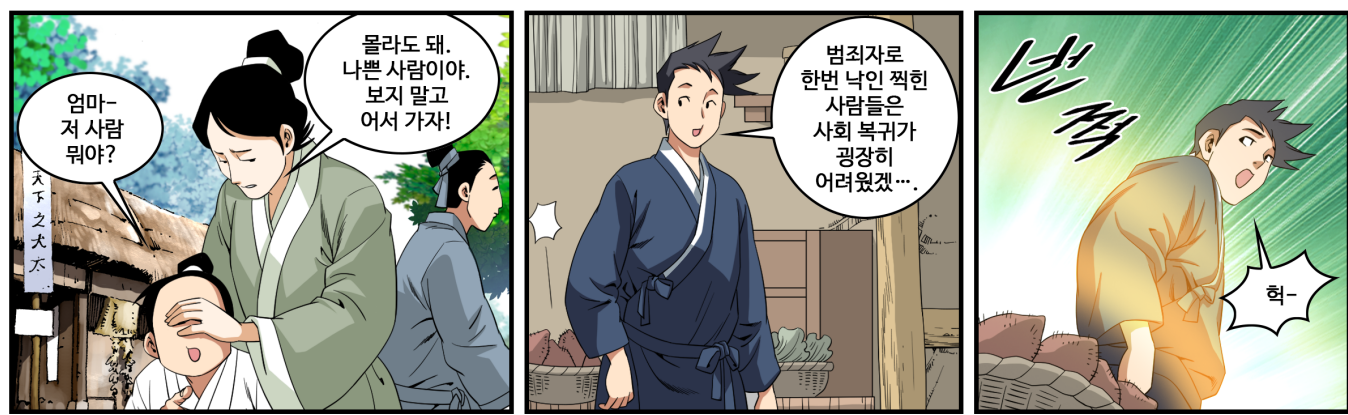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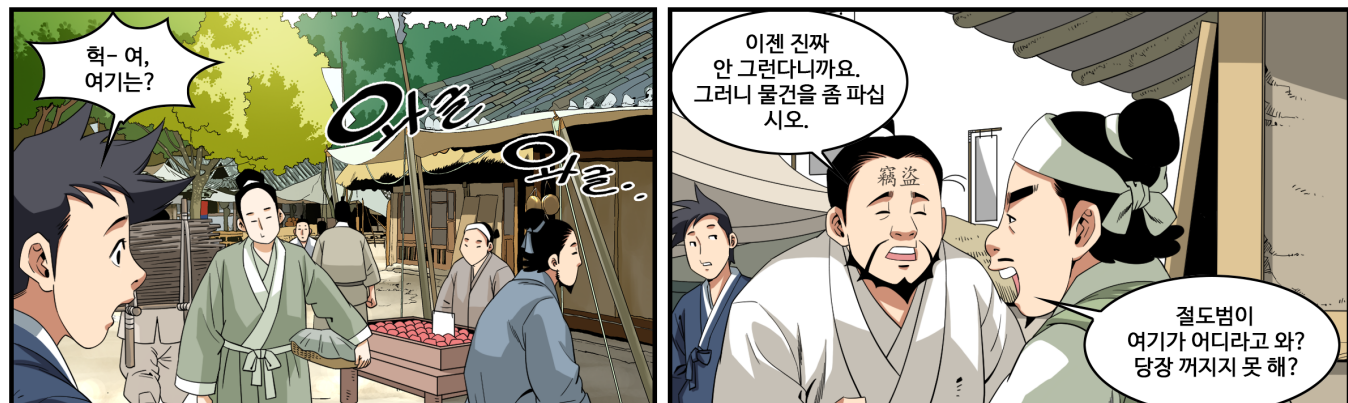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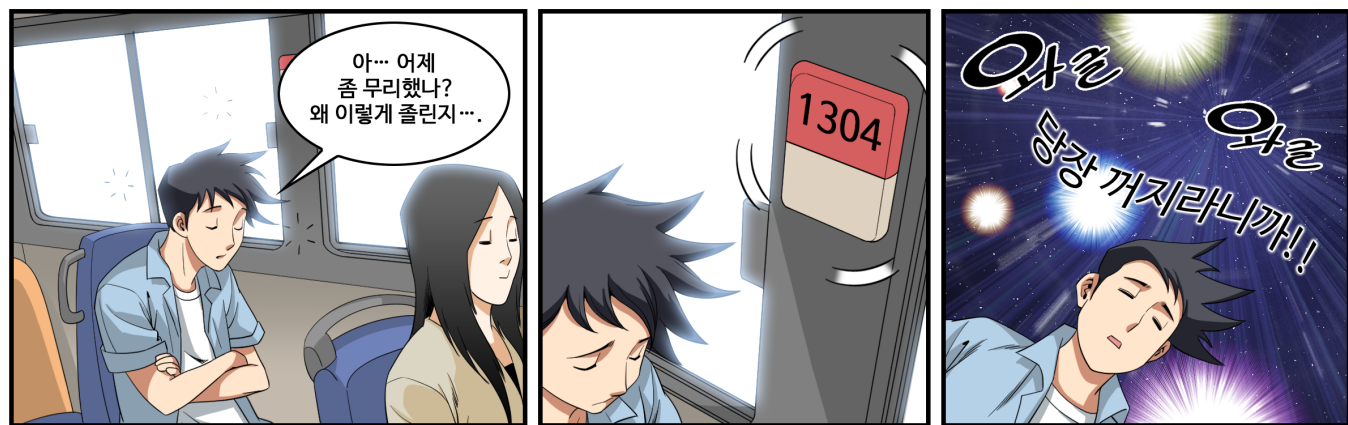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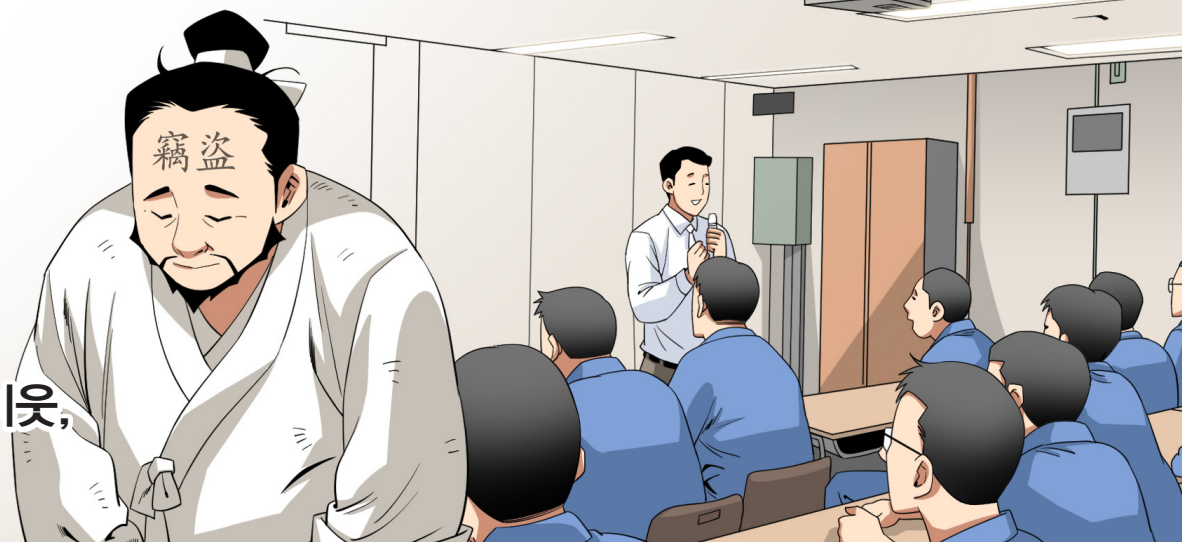
버거운 만능인 연기를 멈추세요

진심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파릇파릇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후배, 후배의 일을 해결해 주는 만능 선배 연기를 하느라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칠 수도 있어요. 감정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면 불편함을 잠깐 벗어날 수 있지만 누적되면 모든 게 꼬이게 됩니다.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균열이 생기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을 환히 열어 나를 다시 보세요

당신은 솔직하지도, 상냥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게 두려워 무의식적으로 '가짜 진심'을 앞세우는 건 아닌가요? 스스로 과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큰 문제는 당사자마저 가짜 진심을 진짜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나의 감정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마음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시 돌아올 우리 이웃, 낙인을 지우다



천국을 유명하는 듯한 낙원 모리셔스 + 파티와 관련한 영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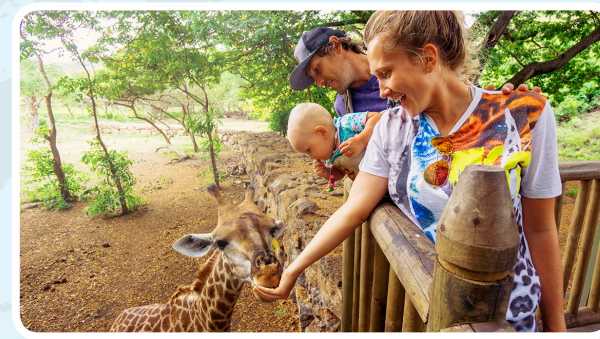
Mauritius

위치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
인구 약 1,271,368명
면적 2,040 km²
비행시간 최소 15시간 50분 소요
한국과의 시차 -5시간

소개 “천국은 이곳을 본떠 만들었다.” 미국의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모리셔스에 오자마자 이렇게 감탄하였다. 드넓게 펼쳐진 자연과 맑고 깨끗한 에메랄드 빛 바다는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 거기에는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뿜어내는 역동적인 생명력은 방문객들을 한순간 매료시킨다.

그림 같은 풍경에 1년 내내 청량한 날씨는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한다. 이러한 온화한 날씨는 모리셔스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낭만적이고 화사하며 따뜻한 분위기로 여행의 기분을 한층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이곳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뒤섞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만큼 거주민들은 저마다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화합·소통한다.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만들어낸 색다른 풍경은 또 하나의 매력이다. 마치 천국에 온 듯 하루하루 눈을 즐겁게 하는 모리셔스, 그곳에서 나만의 영화를 완성해 보자.



카셀라 네이처 파크

모리셔스는 육지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다. 카셀라 네이처 파크의 '워킹 워드 라인'은 사파리 투어의 아프리카 버전이다. 맹수인 사자에게 다가가 쓰다듬어 보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정글답게 크기가 사람만 한 육지거북과 노루, 타조 등 다양한 육지동물도 만나게 된다.



일로 셰프 섬

섬 안의 섬으로 불리는 곳으로 새하얀 백사장이 바다의 빛깔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든다. 백사장에 있는 야자수 나무는 태국의 파타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온다. 스네클보트를 타거나 패러세일링, 스노쿨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바다를 마음껏 즐겨 보자.



설탕박물관

모리셔스는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해 왔다. 설탕박물관은 200년 역사를 지닌 설탕 공장을 개조한 곳으로, 모리셔스의 설탕 생산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웅장한 설탕 제조 기계와 사탕수수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 등 볼거리가 끝없이 이어지니 한번쯤 둘러볼 만하다.



카우단 워터프론트

기념품을 선물하고 싶을 때 쇼핑타운인 카우단 워터프론트로 가면 된다. 자연 속에 담백 몸을 담그고 나면 오늘을 기억하고 싶기 마련이다. 상점을 둘러보며 모리셔스만의 특별한 수공예품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레스토랑과 카페도 준비하니 주린 배를 달래기에도 제격이다.

영어회화
표현

🍷 **파티와 관련한 영어 표현**

We're having a party at my place. Would you like to come?
저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오실래요?

Is it all right if I'm late?
늦게 가도 괜찮아요?

What time should I be at the party?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It's all right. People will be around until ten.
괜찮아요. 열 시까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I'd love to, but I'm tied up.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요.

Tell me if you need anything. I'll bring it.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져갈게요.

What is the dress code?
드레스코드는 뭐예요?

No, casual is fine.
상관없어요. 평상복도 괜찮아요.

선생님(쓰앵님) & 작고 귀여운 너(뽀시래기) 신조어 '쓰앵님'과 '뽀시래기' 알아보기



쓰앵님

용어 해석

올해 2월, JTBC에서 23.8%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SKY 캐슬>에서 나온 말이다. 드라마에서 한서진 역을 맡은 염정아 배우가 '선생님'을 '쓰앵님'이라 자주 발음하면서 유행어가 되었다. 쓰앵님이라는 유행어는 김주영 입시코디네이터를 부르는 애칭처럼 쓰이기도 했다. 이 애칭은 선생님보다는 친근하면서도 흔히 학생들이 쓰는 ' 쌤'보다는 높임말인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무거운 이미지의 김주영 입시코디네이터는 쓰앵님이라는 별명을 얻은 덕분에 시청자의 인기까지 누렸다.

전문가 용어 진단

언어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도 한다. '스승' '선생님'이라는 말에는 권위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과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마련이었다. 드라마에서 김주영 입시코디네이터는 머리를 반듯하게 뒤로 넘기고, 낮고 어두운 톤의 발성으로 말을 하였다. 강압적인 분위기로 부모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드라마 속의 흔한 악녀로 이미지가 굳힐 수도 있었으나 쓰앵님이라는 별명을 얻은 뒤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진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대를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도 선생님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 호칭은 어쩐지 어색한 데다 서로에게 거리감을 가져다준다. 선생님이라는 어감을 좀 더 부드럽고 귀엽게 바꾼 쓰앵님은 이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쓰는 말이 되었다. 지하철 광고판은 물론이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쓰앵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때는 단순히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 단어의 사용 대상과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쓰앵님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친근함 때문 아닐까?

뽀시래기

용어 해석

부스리기 또는 잘게 부수어진 가루를 뜻하는 전라도·경상도 지방의 사투리다. 이 말은 최근 들어 아주 작고 귀여운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킬 때 쓰이고 있다. 사랑스럽고 아기처럼 귀여운 모습을 지닌 존재에게 뽀시래기라고 지칭한다. 앙증맞은 새끼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깨물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뽀시래기 같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로 단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기존의 '부스리기'라는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전문가 용어 진단

뽀시래기라는 말은 남자축구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의 수식어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경기에서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는 빠른 발놀림과 패기,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그는 1998년생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 나이가 어린 편이다. 게다가 다른 선수들과 현저하게 키 차이가 난다. 그는 아담한 체구와 귀여운 외모로 한 번, 당당한 말투와 뛰어난 재능으로 또 한 번 매력을 증명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국민들은 팬을 자처하며 그의 사랑스러움을 '뽀시래기 같다'고 표현하였다. 즉 이 말은 영·유아나 새끼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사랑스럽다'거나 '귀엽다'만으로는 상대방의 매력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뽀시래기라는 말은 앙증맞고 귀여운 외모와 더불어 누구나 사랑에 빠질 만한 매력을 보유한 존재에게 걸맞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사랑스러움과 장점을 찾아내려 애쓰고, 이를 표현할 단어를 찾은 행위 덕분에 단어가 탄생된 게 아닐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뽀시래기에는 따뜻한 탄생 배경이 있다.



9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봄,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페루, 교도소의 변화 음악으로 교정교화 돕기

페루 카야오의 엘 카야오 교도소에는 수용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다. 이들 합창단이 평소 노래 실력을 길러 페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였다. 합창단 구성원은 모두 살인, 강도, 마약 밀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들이다. 이들이 다른 수용자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수감이나 족쇄를 차지 않고 악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페루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돕기 위해 약 1억 8,000만 원을 들여 수감이나 족쇄가 아닌 악기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페루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은 선구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협연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교정교화의 가능성을 체감하게 하자는 의도였다. 이들 수용자를 지도한 어느 전문 음악인은 이번 협연을 지켜보면서 “음악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 또 하나의 기회임을 깨달았다”고 전하였다.



미국, 고양이와 수용자가 함께 사는 교도소 화제

미국 인디애나주의 펜들런 교도소가 수용자들이 고양이를 돌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마음을 치유하는 동물 매개 치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프로텍션 리그가 교도소에서 시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평소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놀이기구를 직접 만들어 준다. 고양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청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고양이를 돌보며 수용자들은 책임감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표정도 점차 밝아졌다. 수용자들은 동물보호단체의 면접을 통과하고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을 교육받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더욱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느 수용자는 “내가 무언가를 염려하거나 사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알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브라질, 딸로 변장해 탈옥하려던 수용자 긴장한 모습에 발각

브라질의 범죄조직 두목이 면회를 온 자신의 10대 딸처럼 분장하고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발각되었다. 사연의 주인공은 클라우비뉴 다 시우바란 남성으로, 그가 이끄는 범죄조직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마약 유통을 지배하는 브라질 최악의 갱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을 면회하러 온 딸을 교도소에 남게 하고, 자신이 딸로 변장해 탈옥할 계획을 세웠다. 젊은 여성으로 감쪽같이 위장했으나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었다. 교도관이 불안해 보이는 그의 태도를 의심하여 붙잡은 것이다. 리우데자네이루 교정 당국은 그가 변장에 사용한 실리콘 마스크와 가발, 청바지, 분홍색 티셔츠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탈옥에 실패한 클라우비뉴 다 시우바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춘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조만간 징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그의 딸도 이번 탈옥 시도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영국, 교도소 증설 및 검문검색 확대

영국이 교도소 수용 인원을 1만 명 더 늘리고 경찰의 검문검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이미 잉글랜드, 웨일스의 경찰관 정원을 2만 명 확대하기로 하는 등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을 전후로 ‘범죄와의 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일간지 <테일리메일>의 기고문을 통해 너무 많은 수용자들이 제대로 수용기간을 채우지 않고 출소하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도소 증설은 신규 교도소 건립과 기존 시설 증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총 25억 파운드(약 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존슨 총리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관의 검문검색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한 확대는 범죄 혐의자 발견을 위한 것으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경찰관이 행인을 멈춰 세우고 검문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정기관 내 인권 보호, 교정공무원 체험에서 방법을 찾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체험

8월 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명이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다. 이틀간 교정공무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설과 교정정책이 인권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고, 좀 더 나은 수용·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할지 고민하는 것이 이 체험의 목표다. 연구위원들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립 이래 최초, 연구위원의 교정공무원 체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립된 지 약 30년 됐는데요. 연구위원이 교정공무원 생활을 체험하는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체험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박사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는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하는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수용실태와 교정공무원의 업무환경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같은 연구를 수행 중인 김영중 박사와 함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찾게 되었다. 사실 서울남부구치소에 들르기 전, 두 연구위원은 8월 1일에서 2일까지 창원교도소에서 주야간 내내 수용자 계호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은 건 교정시설의 여건이 수용자 인권 및 교정공무원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창원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교도소예요. 문을 연 지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업무환경이 쾌적하지는 않더라고요. 수용자 수도 많아 교정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서울남부구치소는 창원교도소보다 시설이 좋으니 이곳 업무환경은 조금 낫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날 9시 30분, 서울남부구치소 청사 현관에서 임용식이 열렸다. 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두 연구위원이 일일 교정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연구위원들이 맡게 된 첫 업무는 취사장 업무다. 연구위원들은 깔끔한 취사장 시설을 보며 교정시설 간 환경여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그다음에는 구매부로 이동하였다. 수용거실에서 작성된 OMR 카드를 판독하여 각 수용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급하는 곳이다.



“저희 교정공무원들은 주 업무가 수용자 계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나르는 등의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일을 직접 하게 되면 시선이 분산되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업무는 수용자를 경계하고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의 교정공무원들은 연구위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공유하였다. 그 외중에도 시선은 늘 수용자들을 향하고 있었다.

첨단 보안시설, 그리고 교정 이미지 개선 활동

두 연구위원이 중앙통제실로 이동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수용동 14개, 수용거실 728실이 있다. 건물 외벽에 주벽과 전자펜스, 보조펜스로 물리적인 보안을 구축하였다. 동작 감지 카메라, 접촉 감지 광센서 등으로 움직임 감시한다. 중앙통제실에서 450개가 넘는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정사고 우려자의 경우에는 영상 계호도 한다. 뛰어난 해상도, 사각지대 없는 CCTV로 원하는 곳을 모두 볼 수 있다.

“CCTV는 감시 목적도 있지만, 수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큼니다. CCTV가 있다는 걸 알면 수용자들도 조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전자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눈에 상황을 관제할 수 있도록 통제실 시설을 현대화하였다. 또 보안청사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설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완비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

고 교정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연구위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곳은 ‘보호장비실’이었다. 수용자를 결박해야 하는 장비가 많은 곳에서 수용자의 인권 그리고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교정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요즘은 주취자들이 많아요. 경찰서에서 우리 소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술 취한 사람의 경우 특히 다루기가 어렵죠. 장비를 과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교정공무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거나 결박한다기보다는 보호하는 목적이 큼니다. 자해하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 방식은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인권도 지키기 위한 고민이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교정 이미지 개선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관 및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지역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와 불우가정 학생을 후원한다.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 교정시설과 연구기관이 지킨다

체험을 마친 강태경 박사는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걱정하였다. 창원교도소에서 느꼈던 공무원들의 피로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느꼈다고, 24시간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보직, 현재와 같은 4부제 근무가 시행되는 한 이런 피로는 계속될 것이라 말하였다.

“그래도 서울남부구치소는 시설이 좋은 편이라 다행이에요.

사실 근무기관 자체의 장단과 관계없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시설여건이 반 이상이에요. 수용자든, 교정공무원이든 시설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수용자도 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교정공무원도 수용자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어요.”

두 연구위원은 교정공무원들 스스로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교정공무원들이 야간에 수용거실을 순찰하는데요. 수용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아야 해요.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거든요. 인권 문제 때문에 잠자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는 행위가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교정공무원들이 이미 그런 고

민을 하고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 체험을 한 연구위원들은 향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복귀하여 교정공무원들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힘을 예정이다. 또, 수용자의 인권에 못지않게 교정공무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계획이다.

높은 담장 안에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삶이 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수용자가 있고 인간의 미래 가치를 볼 줄 아는 교정공무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수용자와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불어넣는 교정공무원들. 양쪽 모두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연구기관이 함께 애쓴다.



일일 교정공무원이 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INI INTERVIEW



강태경 박사

그동안 교정시설에 방문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교정공무원 체험을 하면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매우 많다고 느꼈고, 인력 총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을 위해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시설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어요.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중 박사

저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과제 연구책임자인 강태경 박사과 함께 교정공무원 체험을 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체험을 통해 교정기관의 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업무 그리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많이 이슈화되는 수용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인권도 균형 있게 다루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교정공무원 힐링캠프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던 8월, 교정공무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마음 비우기, 함께 노닐기'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교정공무원 힐링캠프'가 개최된 것이다.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희망과 감사가 넘쳤던 현장으로 가 보자.



제1회 개최, 교정공무원을 위한 복지혜택

교정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오늘도 맑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어떻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나 고된 격무 속에서 뜻하지 않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교정본부는 8월 26일 오후 5시 전라북도 부안의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교정공무원과 가족을 초청하여 '교정공무원 힐링캠프'를 개최하였다. 전국의 교정공무원 중 상처로 인해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행사 참여를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으로 열렸다. 교정공무원 힐링캠프는 교정본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교정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답인 셈이다.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라는 점에서 제1회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였다. 교정본부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와 함께 행사를 준비했으며, 전국 각 교정시설의 추천을 받아 치유가 필요한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50여 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동료, 가족과 함께 2박 3일간 캠프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힐링캠프가 되길

“가자! 변산으로!” 이번 힐링캠프 참가자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들 정도로 표정이 밝았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



다.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최창민 교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오픈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영상에는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참석한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다양한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여행지에서, 집에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사진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였다.

이어 승성신 교정동우회장이 나와 “2박 3일 동안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상처받은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힐링 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은 “30여 년 전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전국의 교정 시설을 방문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교정공무원의 모습에 따뜻한 희망과 열정을 봤다”면서 “모두가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료들의 열정적인 색소폰 연주, 마음의 위안을 얻다
격려사에 이어 군산교도소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위라벨 밴드’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음악을 통해 여러분이 잠시나마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한 후, 멋들어진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었다. 채충근 교감의 색소폰 독주로 노사연의 노래 ‘바

램’이 실내에 은은하게 퍼졌다. 이어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해변으로 가요’가 색소폰 합주로 울려 퍼지며 신나는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다.

흥겨운 가락에 맞춰 아이의 손을 잡고 손뼉을 치는 엄마, 지켜보는 아빠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박자에 맞춰 박수치면서 이 순간을 즐겼다. 열정적인 색소폰 연주가 끝나자, 앉은 자리마다 소나기 같은 박수가 터졌다.

음악의 아름다운 향연에 빠졌다가 나오니 이제는 마음 놓고 웃을 시간이다. 방송국 개그맨 출신 강일구 씨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강일구 씨는 법무부 교화방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정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인물이다. 교정행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는 교정공무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교정공무원과 가족들은 강일구 씨에게 보답하듯 둥근 테이블마다 앉아서 적극적으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게임, 가족이 함께하는 낱말 맞추기, 재기차기, 부부 칭찬해 주기 등을 통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바비큐를 즐기다
끝으로 이번 캠프에 참가한 가족이 모두 나와 단체사진을 찍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저녁식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모

듬 숯불 바비큐가 준비되었다. 리조트 옥상, 야외 레스토랑에 모인 교정공무원들은 저마다 “근사한 식사가 준비된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위로받는 듯하다”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감정이 충만해 보였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수용자 사회 복귀를 위해 일해 온 이들의 묵묵함이 느껴졌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고 채색감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터, 밤은 깊어 가고 오랜만에 나누는 이야기는 쉬이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름다운 변산반도를 여행한다는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참석자들은 숙소에서 편안히 몸을 누였다.

‘가족은 희망입니다’
화면에 떠 있던 이 글귀가 유달리 가슴에 와 박힌다.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남편, 아내, 또는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정공무원들. 이곳에 온 이들의 무거운 어깨가 잠시나마 가벼워지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가족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번 힐링캠프를 계기로 교정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mini
인터뷰



힐링캠프 참여로
활력을 얻은 교정공무원

수원구치소 교감 이양형
우리가 근무하는 곳은 하나의 또 다른 사회입니다. 우리의 업무 자체가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사회 안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업무에서 벗어나 집에 갈 때는 안에 있던 일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단련합니다. 오랫동안 테니스로 운동하며 심신을 다스리고 가족과 주변의 좋은 사람에게 밝은 기운을 얻습니다. 교정공무원은 힘든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풀거나 치유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힐링캠프가 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 나름의 교정철학

교도관과 교정행정에 대한 소고(小考)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친구, 친지 등을 포함 대국민 상대로 설명하고자 할 때, 특히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질문할 때 그냥 “아버지는 나쁜 사람들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사람이라네”라는 대답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도관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분모의 직업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도관의 직업 정의를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강제 격리 및 안전관리의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방위 최후의 보루자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직업정체성이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에 봉사라고 한다면, 교도관의 직업정체성은 범죄인의 회오반성 촉구를 통한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도관의 직업정체성 또는 가치 그리고 교정교화의 유의미성은 한마디로 우리 전통 고전의 권선징악과 개과천선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행정에서의 개과천선이란 범죄행위와 그릇된 삶에 대한 반성, 시설 내 규칙 준수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준법정신 배양 그리고 사회 복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과 성실한 준비를 말하겠지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행정의 정의는 구금작용, 계호작용을 통한 범죄서 수호와 수용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인권 보장, 이 두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국가행정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권 보장 역시 무질서와 제멋대로식의 권리를 보호하지는 것은 아니지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행정의 정의는 범죄인에 대해 회오반성과 속죄의 시간이 의무적으로 지켜지도록 강제 작용함으로써 사인 간의 사적 복수가 아닌 범죄 피해자를 대신한 국가의 공적인 응보행위 달성을 위한 국가의 사법정의라는 법정신을 추구하는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도관은 기결수용자에 대해 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범죄자를 관리하고 지도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범죄인 역시 속죄의 시간 이행 이후에는 건전하고 떳떳한 국민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화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덧붙이자면, 교정교화프로그램 역시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되어야 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는 교화받을 자격조차 없으며, 반성하는 자만이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는 대명제 하에 이루어진다면 재범 방지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법정신도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2016년 9월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재직 시 든 생각입니다.

교정행정과 교도관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소고(小考)

경찰의 존재목적이 사회 법질서를 위반하는 범죄인을 체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에 있고, 군대의 존재목적이 외세의 침략에 대한 국가를 방어하는 데 있으며, 소방의 존재목적이 화재 진압·구조 및 구급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처럼, 교정의 존재목적은 경찰에 의해 체포·구속되고, 검찰에서 기소되어, 법원의 결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에 대한 안전한 구금 실현으로 사회 격리를 완성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도관이 국민과 유관 사법행정기관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본연의 직업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판결에 의해 정해진 형량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의 사회 격리라고 볼 수 있으며, 교도관이 없다면 사회 정의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 방위를 위해 격리된 기간 동안 국민의 법감정에 부흥하기 위한 숭고한 의무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회오반성을 촉구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범죄인의 올바른 재사회화를 위해 법질서 준수 의식이 함양되도록 개선(교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기초질서 및 수용생활규정을 준수케 함으로써 사소한 일탈행위부터 저지르지 않는 습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토록 하여야 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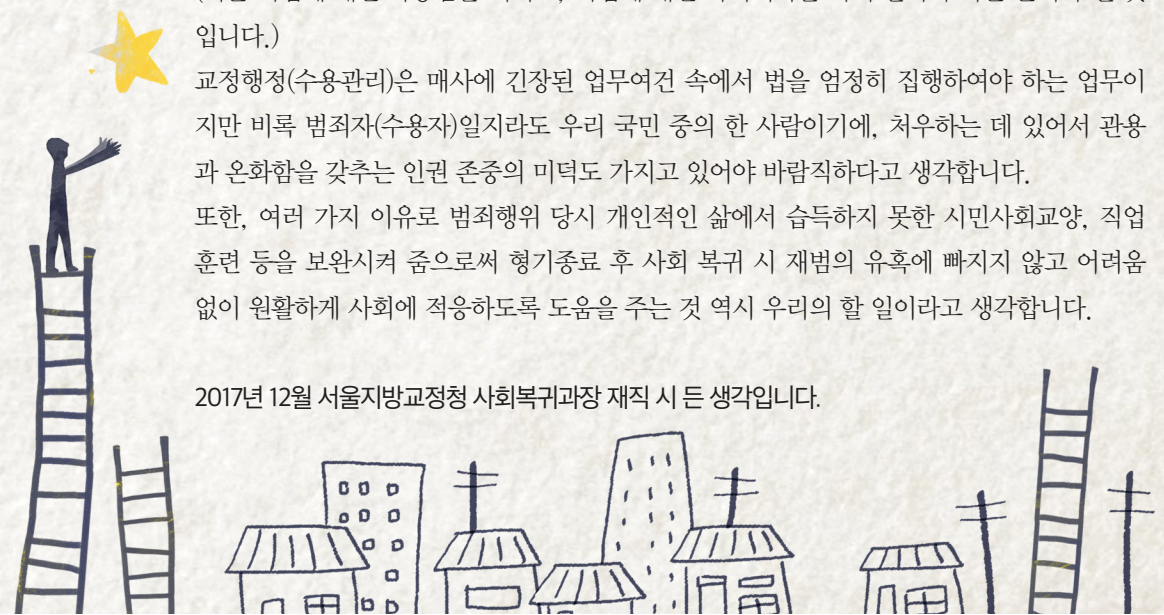
교도관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범죄는 지엄한 국가의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대명제를 이루기 위한 엄정한 법의 집행자이며 사회 방위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지키고, 직업에 대한 자기비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교정행정(수용관리)은 매사에 긴장된 업무여건 속에서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야 하는 업무이지만 비록 범죄자(수용자)일지라도 우리 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에, 처우하는 데 있어서 관용과 온화함을 갖추는 인권 존중의 미덕도 가지고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행위 당시 개인적인 삶에서 습득하지 못한 시민사회교양, 직업훈련 등을 보완시켜 줌으로써 형기종료 후 사회 복귀 시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재직 시 든 생각입니다.



교도관 서약과 문제수용자 처우에 대한 단상(斷想)

교도관은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수용자들 중 극히 일부인 소위 “세금 축내는 국민들” 즉, 문제수용자를 관리하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예전 초임 근무시절 행형처우 관련 용어 중에 개선극란자(C급)가 있었습니다. 듣기에 참 거슬리는 용어이지요. 지금은 경비처우급 등으로 교정행정의 목적에 맞게 바뀌었습니다만, 그 말 그대로 교화개선이 지극히 극단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제수용자의 행태는 기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교정시설에서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편의도모가 좌절되었다는 이유로 교정행정에 대한 불만과 증오에 찬 문제수용자들이 “내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근무 수행 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긴장된 근무여건 속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쏘는 기분은 당연하겠지요. 이런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분은 금물입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오히려 문제수용자의 교활한 수작에 끌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보안장비를 활용, CRPT 지원을 요청하고 동영상 등 채증 준비를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당신 말대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교정시설에서 당신을 관리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당신은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낭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욕하지 마세요. 형집행법 제107조 1항에 의거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관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문제수용자의 폭언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 후 징벌 조치 및 사안에 따라 검찰에 입건 송치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도관의 본연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욕’ 하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직원이 수용자에게 우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말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리자에서 관리대상자로 신분이 뒤바뀌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우리 조직이 그동안 쌓아 온 노력이 한순간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범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거한 단호한 일벌백계는 정당한 공권력의 위상을 제고시켜 동일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타 수용자에 대해 안정된 인권 존중의 수용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설 내 안전과 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용자의 준법의식이 배양토록 개선(교화)시켜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법정의 실현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범질서를 위반하여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한 범죄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처벌된 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시설 내의 규정마저도 가벼이 여기고 이를 훼손하려 든다면, 또 이러한 행위가 방치된다면 범죄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까요? 범죄자가 국가를, 공동체의 시스템을 희롱하려 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내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용처우와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이 배양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시스템에 의해 비참하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경우가 없도록, 아울러, 수용자도 미래에 사회 복귀 시 준법의식이 몸에 익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 격리라는 찻값을 치른 후 새로운 의지가 있는 국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18년 3월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재직 시 든 생각입니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 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가족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미안함, 부족했던 과거를 속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접견하러 왔다가 서울구치소 민원실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저의 죄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범죄인의 심부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밀수 공범으로 실형 5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두로 오피스텔을 예약해 주었고, 몇몇 심부름을 해 준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인은 저와 상의 없이 저에게 소액의 수고비를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리 목적까지 더해져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영리 목적이란 죄목은 최소 징역 기간이 5년이나 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이렇게 되어 버린 나의 인생.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진술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했을 당시에 했던 저를 지켜 주겠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봅니다. 항소심에서 그는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이 위증죄가 될까봐 두려움이 컸나 봅니다. 참고인의 반복은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말이죠.

항소심 때 아무리 반성문을 쓰고 준비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 공범의 진술에서 무너져 버린 저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제 사진 한 장 없이 꽃다운 나이를 플라스틱 거울만 보고 보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제까지 1년이란 세월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5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 소식을 미국에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어머니입니다. 지난 번 전화 통화에서 “영치금 걱정 마라. 출소만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하신 목소리가 맴돕니다. 하지만 다시는 남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 제가 어머니에게 준 상처, 13살 때부터의 미국 생활, 미국 영주권 박탈 등 무의미하게 흘러갈 저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초조하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보다 미국에 늦게 유학을 갔고, 처음에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달래고 혼내면서 학교 보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골프, 중국 가야금, 수영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만큼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첫째인 저에게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으나 저는 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드렸습니다. 그들이 저로 인해 들었을 배신감과 실망감은 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복동생들이 저를 보고 뺨뺨어질까봐 무섭다는 어머니의 탄원서는 저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생 동생들에게 이런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족으로서 잊힐까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아이들의 예쁜 시절을 제가 못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언제쯤이면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저를 사랑해 주던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헤쳐 나갈지 많이 두렵습니다.

Mommy!

미국에 있을 때 시야가 좁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통화하자마자 눈물만 보인다는 1심 변호사님의 말씀에 엄마에게 더 미안하고 죄책감만 들어요. 한국에 꼭 가야겠다고 했을 당시 돈은 있냐고 묻던 엄마. 그 당시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국까지 왔다가 오히려 멀어진 그 남자는 날 감싸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번 일로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1년이란 시간을 버텼는데, 이제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에 엄마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정말 그와 그의 형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직은 사람 보는 눈도 인생 경험도 많이 부족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속죄하고 있고, 엄마에게 아픔을 주어서 많이 미안해요. 그리고 이런 날 포기하지 않고 감싸줘서, 내 손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엄마. Mommy, I really miss you.

교정기관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上)*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과 그 효과가 교정기관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 연방 정부 내 교정기관의 근무자들의 경우,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대체근무제도의 참여 비율은 낮은 반면,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체근무제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보였고,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체근무제, 건강증진, 가족돌봄, 교정기관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904-002)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2019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글은 2019년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제83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제1저자.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2019. 6. 2.) 심사일(2019. 6. 20.) 수정일(2019. 6. 24.) 게재확정일(2019. 6. 26.)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I. 서론

일반적으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타 공무원들 혹은 사기업 종사자와 다르게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크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교정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근무환경 및 조건 역시 여타 조직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상당수가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윤옥경, 2006; 정혜경 외, 2014; 양점미 외, 2016)와 직무소진(박정수 외, 2016; 양점미 외, 2016; 정혜경 외, 2014),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수정 외, 2004)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교정공무원의 이처럼 높은 작업 위험과 열악한 환경은 그들의 업무능률을 저해하며 이직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교정조직은 다른 조직과 달리 구성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중요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조직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다양한 차원에서의 웰빙(wellness)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지 함의를 얻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교정공무원들의 각 프로그램 이용양상은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② 이들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업무노력, 직무만족 그리고 일 자체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원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과거 고전적 조직관리이론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을 단순히 기계부품처럼 인식하여 오로지 경제적 인센티브를 관리하기만 하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인식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Mayo를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간관계론을 시작으로 조직연구자들은 구성원의 심리적·신체적 필요를 고려해야 함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Mohr-Jackson(1991)이 제시한 '내부고객(Internal customer)'의 개념은 이러한 인식의 절정을 보여준다. '내부고객'의 개념은 마케팅 분

야에서 처음 논의된 개념으로서 기존 마케팅 분야에서 핵심화두인 '고객'의 개념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일종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조직에서 오직 생산물을 구입하는 '외부고객(external customer)'의 만족만을 초점으로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해 온 것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조직의 장기적 성공을 위하여 조직 내부의 직원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Pfau, Detzel, & Geller(1991) 역시 조직의 내부고객은 외부고객과 대면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위치이므로, 이들의 불만족은 외부고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고객의 만족을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구성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웰빙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업무성과 향상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다. 그렇지만 조직 내 인적자원의 고갈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과를 해친다는 공감대 하에서, 구성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Lee, 2019).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성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치료하여 '성과개선'을 꾀하려는 목적도 있다(Masi & Jacobson, 2003).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원의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필요를 돌보아 주어 조직이 진심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복지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Grover & Crooker, 1995).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이직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Lee & Hong, 2011) 이직자 대체비용을 낮춤으로써 조직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교정기관의 근무자들은 여러 가지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직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이민식, 2006),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교정기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근무제, 가족돌봄 프로그램, 건강보조 프로그램이 그 세 가지이다. 우선 대체근무제와 가족돌봄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향점으로 시작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정과 일을 모두 돌보

이야 하는 여성들의 이중책임(dual responsibility)을 직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가사의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이 직장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중책임의 부담을 직장에서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워라벨제도는 일(work)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지원제도와 가정생활(life)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는 대체근무제, 가정생활에 초점을 맞춘 제도는 가족돌봄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구성원이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에너지가 소진되고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건강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 대체근무제

앞서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대체근무제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개념 중에서 일(work)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는 전통적인 업무수행방식, 즉,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함께 모여 근무하고, 정시에 모두 함께 퇴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업무의 수행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① 재택근무(telework)

재택근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의 조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근무방식이다. 근무자는 반드시 사무실이라는 한 공간에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가 없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정 혹은 원하는 장소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의 통제는 주로 업무단위의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어렵다. 따라서 업무의 구성 단위가 각 개인별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경우에 빈번히 사용될 수 있으며, 동료와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에게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주요한 목적 중 한 가지는 개인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 결과 보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업무 스케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유연시간 근무제(Alternative Work Schedule: AWS)

유연시간 근무제(AWS)는 근무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는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고, B는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퇴근하는 등 총 근무시간의 시작과 끝을 달리 설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개인의 사정과 경제적 필요 그리고 직장의 인력 필요에 맞게, 총 근무 시간이나 총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직의 입장에서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재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는 과로와 지나친 업무부담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2) 가족돌봄 프로그램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돌봄 프로그램은 가정생활(life)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 가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각 구성원들의 가정생활의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직장의 업무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육아보조 프로그램(Child Care Programs: CCP)

육아보조 프로그램은 육아를 담당하는 연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육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 이혼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부모(single parent)가 많아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운영되거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책임을 경감해 줌으로써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노인돌봄 프로그램(Elderly Care Programs: ECP)

노인돌봄 프로그램 역시 부양자 지원(dependent care)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들 노인들의 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부양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건강보조 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는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 혹은 성인병 등 신체적 질병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보건(Public Health) 정책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직장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직장인의 많은 수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업무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결근률이 증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건강문제를 돌보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보조 프로그램은 크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관장하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의 치료를 주로 관장하는 종업원보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건강향상 프로그램(Health and Wellness Programs : HWP)

연방정부 내에는 Federal Occupational Health(FOH)라는 자체 내 서비스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에서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건강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보조 프로그램, 비만예방 및 운동 프로그램, 성인병 예방 교육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병, 비만 등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종업원보조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EAP)

연방정부 내에는 종업원보조 프로그램(EAP)을 운영함으로써, 알콜중독, 우울증, 심각한 정도의 성인병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심리상담,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이들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종속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업무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프로그램은 직간접적으로 구성원의 업무능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능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무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Porter & Lawler(1968)의 모형에 따르면, 업무노력의 정도는 동기부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가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이를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동기부여의 향상을 꾀하는 것인 만큼 업무노력의 정도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의 정도를 측정하여 지원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직무만족은 인간관계론 이후 전통적으로 조직 내 개인의 동기부여와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직무만족은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에 더욱더 몰입하게 하며(오인수 외, 2007), 이직률을 낮추고(오인수 외, 2007),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De Cooman, Stynen, Van den Broeck, Sels, & De Witte, 2013). 많은 수의 연구들이 워라벨 정책(이흥규, 2018; 이형우 외, 2019), 가족친화 정책(문선희, 2013; 문영주, 2014) 등 지원정책의 효과를 직무만족 향상의 정도로서 검증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는 미국 인사혁신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매년 실시하는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FEV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FEVS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각 부처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직무와 조직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등을 묻는 설문을 포함하였는데, 이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였다. 우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설문표본 중 연방교정국(Bureau of Prisons)에 근무하는 응답자로부터 얻어낸 하위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5개 년도에 걸쳐 응답한 응답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된 표본(Pooled sample)을 구성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13,692명이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표 1>에 요약하였다.

2. 연구주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주제는 실제 미국의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이 이들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들 여섯 가지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6개의 더미변수로 측정한 뒤, 참여확률을 계산하여 연방정부의 일반직 공무원 전체와 비교하여 참여비율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62.2	연령	40세 미만	28.8
	여	28.6		40세~49세	38.1
근속년수	5년 이하	16.9		50세~59세	21.4
	6년~14년	29.4		60세 이상	5.8
	15년 이상	36.6		각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것이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종류의 프로그램을 대체근무, 건강보조, 가족돌봄의 세 종류로 구분한 뒤, 각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을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할 것이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FEVS에 포함된 다양한 설문문항 중 본 연구에 적절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각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여섯 가지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들은 각각 더미변수로서 측정되었다(참여=1, 비참여=0).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검증에 위하여, 이들 변수를 사용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비율을 교정공무원과 전체 일반직 연방공무원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업무노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필요하다면, 나는 나의 일을 마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When needed I am willing to put in the extra effort to get the job done)” “나는 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는다(I am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do my job better).” 이 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업무노력의 신뢰도값은 .80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다음의 3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내 조직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한다(I recommend my organization a good place to work)”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의 업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Considering everything,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job?)”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의 조직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Considering everything,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organization?)” 이 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직무만족의 신뢰도값은 .9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6개의 프로그램을 그 종류에 따라 두 개씩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참여한 프

〈표 2〉 설문문항과 신뢰도

종류	변수명	문항	신뢰도
종속변수	업무노력	필요하다면, 나는 나의 일을 마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 (When needed I am willing to put in the extra effort to get the job done).	.802
		나는 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는다 (I am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do my job better).	
	직무만족	나는 내 조직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한다 (I recommend my organization a good place to work).	.901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의 업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Considering everything,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job?)	
프로그램 참여여부 (연구문제 1)	재택근무(Telework)	참여 = 1, 비참여 = 0	
	유연시간 근무제(AWS)		
	건강향상 프로그램(HWP)		
	종업원보조 프로그램 (EAP)		
	육아보조 프로그램(CCP)		
	노인돌봄 프로그램(ECP)		
독립변수 (연구문제2)	대체근무제	Telework & AWS : 참여 프로그램 가짓수	
	건강보조	HWP & EAP : 참여 프로그램 가짓수	
	가족돌봄	CCP & ECP : 참여 프로그램 가짓수	

로그래의 개수를 측정한다. 이들 세 가지의 참여횟수는 독립변수로서 모형검증에 사용하였다. 첫째는 ‘대체근무제도’의 독립변수다. 이는 재택근무(telework)와 유연시간 근무제(AWS)의 두 가지 프로그램 중 몇 가지 참여했는지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와 AWS 중 아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 0, 이 중 어느 하나만 참여하고 있으면 1, 이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면 ‘대체근무제도’의 독립변수의 수치는 2로 코딩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건강보조 프로그램’ 변수 역시 HWP와 EAP에 참여한 가짓수를 합쳐서 측정하고, 세 번째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변수도 CCP와 ECP의 참여 가짓수를 합쳐서 측정하였다. 〈표 2〉는 설문문항과 신뢰도값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IV. 분석결과

1. 교정공무원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은 여타 기관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 연구주제는 교정공무원들의 프로그램 참여양상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다르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연방공무원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T-test를 실시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3〉은 T-test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표 3〉 각 프로그램 참여공무원 비율에 대한 평균 비교

	구분	참여비율	T값
재택근무 (telework)	전체	38.3%	175.546**
	교정공무원	4.5%	
AWS	전체	38.5%	43.602**
	교정공무원	22.2%	
HWP	전체	28.3%	7.787**
	교정공무원	25.3%	
EAP	전체	14.2%	-42.346**
	교정공무원	32%	
CCP	전체	3.2%	2.279*
	교정공무원	2.8%	

ECP	전체	2.3%	.667
	교정공무원	2.2%	

*p<.05
**p<.01

재택근무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참여비율은 4.5%로, 전체 공무원의 38.3%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WS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참여비율은 22.2%로 38.5%의 전체 공무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HWP의 경우 교정공무원은 25.3%, 전체 공무원은 28.3%로 나타나, 교정공무원의 HWP 참여비율이 전체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EAP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참여비율은 32%로, 14.2%만이 참석하고 있는 여타 공무원 전체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비율을 보였다. CCP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2.8%가, 전체 공무원의 3.2%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CP의 경우, 전체 공무원(2.3%)과 교정공무원(2.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관방심의관 등 방문

8월 21일 오하시 사토루 일본 법무성 관방심의관 등 3명이 한국의 수용자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교정본부를 방문하였다. 일본 방문단은 수용자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비롯한 한국의 교정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참관을 통해 실제 교정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 오픈

교정본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개시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된 다양한 교정작품들은 인터넷 물에서 판매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수형자의 안정된 사회 복귀를 위한 작업장려금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판매 작품으로는 백자, 청자류의 도자기 작품과 편백 침대, 소파와 같은 대형가구, 도마와 구이용 돌판 등의 생활용품, 의자, 휴대폰거치대 같은 사무용품 등이 있으며 종류는 120여 종에 이른다.

※ 교정작품 쇼핑몰 주소 : <http://www.corrections-mall.ne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Play스토어에서 '교정작품 쇼핑몰' 검색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 개편

교정본부는 지난 8월 교정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딱딱하고 틀에 박힌 형식의 하향식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편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교정본부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24시(유튜브에서 '교도소 24시' 검색)



<2019 교정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

교정본부는 지난 9월 2일 <2019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전국 교정기관 및 유관단체에 배포하였다. 교정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교정통계연보는 교정본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총 4편(제1편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제2편 수용 현황, 제3편 수용자 처우, 제4편 민간인의 교정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나 제한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8월 1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업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침해 사고 대응요령과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의료법인 계요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구치소는 8월 19일 '의료법인 계요병원'과 수용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구치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정 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 영위와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직원 자녀 봉사활동 실시

안양교도소는 8월 6일과 13일 관내·외 중·고등학교 학생 및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교도소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한 뒤 보라미 준법교실에 참여하여 안양교도소 시설을 참관하였다. 이로써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교정행정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수원지방법원 출입기자 참관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는 8월 6일 수원지방법원 출입기자를 초청하여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취업·창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전자경비시스템과 거실문 자동화시스템 등 첨단기술로 이루어진 수용관리시스템을 보며 변화된 교정행정을 체험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수용자 대상 음악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8월 21일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트로트에서 성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져 수용자들은 정서를 함양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인천구치소는 8월 2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한적십자 인천혈액원 관계자는 단체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직원 가족 참관 행사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9일 직원 가족 50여 명을 초청하여 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정행정 동영상 시청하고 수용기실 및 취사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직원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복지시설 사랑나눔 행사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14일 수용자들이 제과 제빵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한 소보ろ빵을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정기 행사로, 직원뿐만 아니라 제과제빵공과 수용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진입로 가로등 설치

의정부교도소는 7월 31일 숙원사업이었던 진입로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동안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 일몰 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가로등 설치로 출퇴근 하는 직원 및 진입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게 되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일본 법무성 관계자 참관 행사 개최

여주교도소는 8월 20일 일본 법무성 오하시 사토루 관방심의관 등 일본 관계자 10명과 사단법인 세움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여주교도소는 한국의 교정목표와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가족접견실과 가족만남의 집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부패방지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부패방지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 공모전은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었다. 수상작인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은 청사 LED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적극 행정의 이해' 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8월 5일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적극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직원들은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직원 가족 참관 행사 개최

원주교도소는 8월 8일 직원 가족 6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원주교도소는 드론 시연, 호송버스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직원 가족들이 즐겁게 교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참관을 통해 가족이 근무 중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강릉교도소는 8월 23일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릉지역 3개 업체와 강릉고용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구직 정보를 제공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셀프인성교실 연구회 참관 행사 개최

영월교도소는 8월 13일 셀프인성교실 연구회 단체 1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교정행정 동영상 시청하고 자치생활관, 복지관, 공동식당 등을 둘러보았다. 연구회장은 "방송으로 보던 교도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하여 놀랐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안성중학교 참관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8월 29일 안성중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민원실, 강당, 작업장 등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후 교도관과 교도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였다.

소망교도소 | 9직급 배현승 제9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 플레이오프 참가

소망교도소는 8월 24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이구장에서 실시한 제9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 플레이오프 경기에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 예선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둔 소망교도소와 부산교도소가 전국 대회 출전권을 놓고 단판승부를 벌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직원 생일 축하 행사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생일 축하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행복감성 지수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을 고취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가족사랑캠프 개최

대구교도소는 8월 5일 수용자 5명과 그 가족들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날 가족교감활동, 가족과지집·가족티셔츠 만들기 등의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가 가족 관계 단절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최근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들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월 14일 경북 영주시 소재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수용자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창원교도소는 8월 12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 운동은 여름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창원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직원들은 고귀한 생명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헌혈에 참여하여 이웃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음주운전 근절 교육 실시

부산교도소는 8월 6일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대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영동중학교 학생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포항교도소는 8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영천 영동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정직 공무원을 소개하고 교정행정을 홍보하였으며, 법질서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수용자 대상 영화 상영회 실시

진주교도소는 8월 1일부터 에어컨이 설치된 사회복귀과 대강당과 여성처우팀 천주교실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는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수용 처우의 일환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찾아가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직원들의 종교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 초빙된 동국대학교 윤영해 교수는 직원들에게 한국과 세계종교의 상황, 공직자 종교차별의 문제, 종교차별 주요 신고 사례 등 종교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무에 대해 교육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진보 장터 가는 날 행사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8일 '진보 장터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진석 소장을 비롯한 28명의 직원들은 진보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였다. 김진석 소장은 "이번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모범 수용자 자녀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8월 9일 인성교육실에서 모범 수용자 자녀 3명에게 각 6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동교도소 조종래 교정위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부모의 수용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아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한빛예술단 문화공연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8월 23일 문화체험을 통한 수용자 내면의 인성 변화와 건전한 수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빛예술단 콘서트 '올림'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와 영화 '드림 걸즈' OST, 브라스 앙상블을 선보였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제로캠프 '내사랑 희태기' 중간발표회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8월 1일 대강당에서 제로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로캠프 '내사랑 희태기'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간발표회는 상반기 교육 과정을 중간 점검하고 연말에 성공적으로 유지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소년수형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직원 생일 축하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1일 소회의실에서 8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직원 생일 기념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특성상 홀로 생활하는 직원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생일파티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상담위원회 생수 5천 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8월 8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상담위원회로부터 생수 5천 병을 기부받았다. 기부 받은 생수는 열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청렴 캠페인 및 낚시대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8월 10일 낚시 동아리 및 청렴 위원

을 중심으로 청렴 캠페인 및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주 문화의 전당에 모여 청렴 결의와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리고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낚시대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낚시 장소 주변을 청소하였다.

동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동영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1만 3천 병 기증

동영구치소는 8월 9일 동영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만 3천 병을 기증받았다. 이 생수는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동영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얼린 상태로 지원되었다. 최상현 교정협의회장은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독거노인에게 위문품 전달

밀양구치소는 8월 21일 독거노인 8명에게 찾아갈 쌀, 두유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말벗 되어드리기, 주변 환경정리 등 노력봉사를 실시하였다. 정재열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상주교도소는 7월 30일 출소예정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11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가졌다. 이날 ㈜아이더블유 등 5개 기업체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다. 수용자들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실시한 결과 2명의 수용자가 채용약정을 맺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가석방 담당자 심층 면접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8월 20일 대회의실에서 대전교도소 등 6개 기관의 가석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번 심층 면접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가석방 담당자들은 소속기관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직원 힐링 음악회 개최

대전교도소는 8월 5일 '목원대학교 음악대학과 함께하는 직원 힐링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악과 오보에 연주, 바이올린 협주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영화 '미션'의 '별리판타지아' 협주에서는 평소 익숙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 직원들이 환호와 큰 박수를 보냈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해양 음주운전 근절 교육 실시

청주교도소는 8월 21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윤환기 교수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와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7월 2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신규직원들은 공정하면서도 법과 규율을 지키는 교도관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서수원 소장은 신규직원들에게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청렴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교도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일본 법무성 관계자 참관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8월 21일 일본 법무성 관방심 의관 등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의 현황을 청취하고 수용동, 공장, 직업훈련장 등 기관 내부를 둘러 보았다. 홍순철 소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공주시 초대교회 및 공산성로타리클럽 아이스크림 2천 개 기증

공주교도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공주시 초대교회 목사, 공주 공산성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2천 개를 기증받았다. 이 아이스크림은 수용자에게 제공되었으며 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 사례, 장애인 고용 촉진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직원들은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장애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교정협의회 서산지역 위원장 생수 2천 병 기증

홍성교도소는 8월 9일 교정협의회 서산지역 정

제영 위원장으로부터 생수 2천 병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 후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냉동 생수 덕분에 수용자들은 조금이나마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8월 7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경찰인 재개발원 공일환 경감은 공직자 비리 및 부정청탁 관련 사례를 들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직원들은 교육을 듣고 난 후 바람직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소장이 쓴다'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8월 20일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소장이 쓴다' 행사를 개최하였다. 박용우 소장은 혹서기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기에 전 직원에게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다함께 소통·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신규 및 승진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7월 29일 신규·승진직원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신규직원과 승진직원들은 따뜻한 환영과 축하를 받았으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모범교도관 시상식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8월 26일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모범교도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순천교도소 이승현 교사 등 11명에게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윤재홍 청장은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여름방학 맞이 직원 자녀 봉사활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8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직원 자녀들의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직원 화합을 위한 작은 콘서트 진행

전주교도소는 8월 1일 각종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을 대상으로 작은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평소 노래에 관심이 많은 김수오 교위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장기간 격무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은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8월 6일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의 지원을 받아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하절기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미술 작가 초청 작품 전시회 개최

목포교도소는 8월 19일부터 열흘 간 한은혜 작가 초청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40여 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었고, 이를 수용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문화적 소양을 높였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가족접견실, 아동친화형으로 리모델링

군산교도소는 8월 23일 기존의 가족접견실을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티앤씨재단의 후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편안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조성하였다. 김영식 소장은 "수용자가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여 수용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신규직원 임용 축하 선물 전달

제주교도소는 8월 1일 신규직원 5명에게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스트셀러 도서인 정재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을 선물하였다. 신규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출소예정자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지강 양한묵 선생 생가 견학

해남교도소 직원들은 8월 1일 해남군 옥천면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를 견학하였다. 직원들은 이번 견학으로 후손을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며,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줄포중학교 참관 행사 개최

정읍교도소는 8월 21일 부안 줄포중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미디어에서 접한 교도관과 교정시설에 대해 사뭇 다른 점을 느끼고 그동안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교정공제회

성희롱 방지 조치 등 개선계획 수립

교정공제회는 8월 1일 성희롱 방지 조치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전 직원에게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국군교도소

교정업무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

국군교도소는 8월 6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정업무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교도소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바로알기, 인권 침해 사례, 인권 침해 예방 등이었다.



2분기 우수 직원을 소개합니다



서울

서울구치소
교감 이천탁

사회물의사범·사형확정자 관리로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질서 확립

고충처리2팀 사회물의사범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물의사범 및 사형확정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교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형확정자를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수용자들을 수시로 상담하여 심리적 안정과 고충 해소를 도모함으로써 교정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전

충주구치소
의료기술주사 김이곤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골절 및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와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왔다. 또한 수용자 진료 지원 시 위생 관리,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당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수용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소독약품과 마스크를 비치하였다.



광주

순천교도소
교위 허필종

출소예정수용자의 취·창업 및 교도작업 활성화에 기여

직업훈련과 취·창업 담당자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취업 알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출소예정수용자 140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취·창업에 성공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소 내에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남공단 소재 중소기업 'KET'를 유치하는 등 교도작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다.



대구교도소
교위 박영구

교정시설 주변 환경개선으로 교정행정의 밝은 이미지 구현

개방지역직업장 명을 받고 근무하면서 '기관 환경이 곧 내 직장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주변을 청결히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개방지역직업장의 울타리 안쪽에 자라고 있는 무궁화나무를 정돈함으로써 다른 직원에게 귀감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깨끗하게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밝은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위 박동수

에어컨 청소를 통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 건강 향상

평소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교정시설 내 에어컨 필터를 청소·교체하였다. 그는 전문 교육기관의 에어컨 분해 청소법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열의도 보였다. 4월 초부터 8월까지 교정시설 내 60여 대의 에어컨을 청소하며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었다.

대구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교정공무원의 이야기, 방송작가의 역할을 새삼 깨달았어요

직장인 이채은

안녕하세요.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채은입니다. 저는 교양·시사·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월간 <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드라마·영화 작가들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참관한 기사가 실려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작가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작가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둘러본 것이겠죠. 기사를 보니 영화나 드라마에 방영된 교도소 이야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극적 전개를 위해 드라마적 요소를 일부분 넣었다면, 앞으로의 미디어는 교정행정을 발전시키고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교정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겠죠.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의 삶에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시설인 만큼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우리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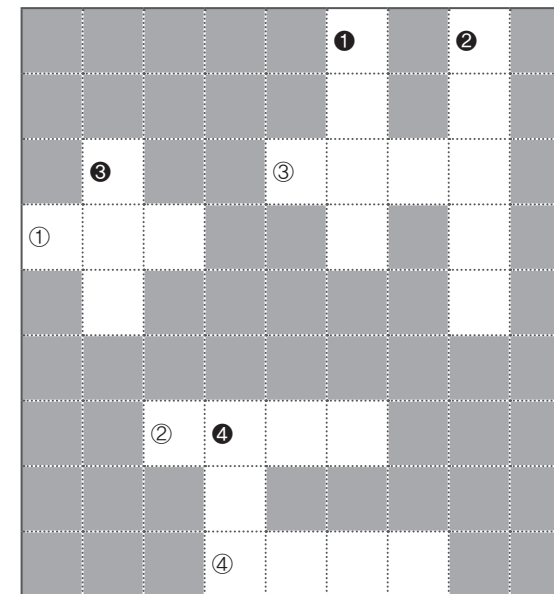
교정공무원들이 교정행정 발전과 안전한 사회 조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는 모습을 프로그램에 담고 싶네요. 교정행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교정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방송작가로서 교정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열쇠

- 1 모리셔스의 카셀라 네이처 파크의 '워킹 워드 ooo'은 육지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중 하나로, 사파리 투어의 아프리카 버전이라 할 수 있다.
- 2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이나 물질을 갑자기 끊을 경우 나타나는 정신 및 신체 증후군을 말한다. 이 증후군 때문에 금연·금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들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한다.
- 3 사랑스럽고 아기처럼 귀여운 모습을 지닌 존재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의 수식어이기도 하다.
- 4 VR은 고글과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다. 5G시대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 이 VR을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

세로열쇠

- 1 이 근무제는 근무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2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개최된 곳이다.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다.
- 3 ooo이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 질량체가 붕괴하게 된다는 이론적인 점을 말한다.
- 4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으로 정몽주가 지은 시조다. 이 시조에는 고려를 향한 정몽주의 진심이 담겨 있다.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는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월간 <교정>은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항상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습니다. 건의 드릴 점이 있다면 <교정>지를 빠르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월 요금제 등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나 다양한 SNS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관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승용 님(부산구치소 교위)

요즘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그중에서도 새로 떠오르는 핫한 채널은 '고도소 24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도소 24시' 제작팀의 활약을 월간 <교정> 지면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교정을 맡하다 코너에서 실무자의 생생한 교정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신규 직원의 입장에서 각 단계별 대처와 예상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교정 실무자의 현장 지식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느라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교정>지 직원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승열 님(원주교도소 교도)

교정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 이것저것 조사해 보던 중 <교정>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2019년 진로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도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교도관이란 아마 가장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교도관을 위한 <교정>지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유진 님(천안여자고등학교 학생)

지난 호 퀴즈 정답

				①보	
①스	마	트	밴	드	
				미	②협
	③마			④명	의
	시		②일	심	동
	멜			보	체
③어	그	로		감	
④교	정	행	정	선	진
					화



퀴즈 정답자

- 이승용 님(부산구치소 교위)
- 김유미 님(여주교도소 교사)
- 김영아 님(서울구치소 교도)
- 하우현 님(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도)
- 강승열 님(원주교도소 교도)



교정본부
보라미·보드미와 함께하는

제74주년 교정의날 기념

웹툰 공모전

2019. 8. 26. - 9. 27.

공모자격 ▶ 대학·일반부 : 대학(원) 생 및 일반인
▶ 청소년부 : 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 최대 3명까지 팀으로 구성 가능

공모분야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보드미를 활용한 웹툰

공모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범죄예방의 극복을 위한 스토리텔링

제출규격 ▶ 분량 : 10컷 이상의 스토리라인 완결 단편집
▶ 해상도 : 300dpi 이상, 가로 720픽셀 이하, 세로 제한 없음
▶ 파일형식 : jpg파일 (단, 수상작은 PSD 또는 AI 원본파일 제출)
▶ 제출방식 : 규정된 양식 내 이미지 삽입 후 제출
※ 웹툰 양식 홈페이지(자료실) 다운로드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mojcontest.com] 접수

공모기간 2019. 8. 26. (월) ~ 9. 27. (금) 17:00

결과발표 2019. 10. 14. (월) ※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구분	인원	시상내역	
		대학·일반부	청소년부
최우수상	각 1명(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법무부장관상, 상금 150만원
우수상	각 1명(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150만원	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각 1명(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법무부장관상, 상금 50만원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주)씽긱 02-334-9044



교도소가 궁금해?

유튜브에서 '교도소 24시'를 검색해 보세요!



교정본부가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교정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교도소 24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